

제42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5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철회의 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요청안
3.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증인 철회의 건 1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요청안 2
3.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2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박찬대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한 8년 만에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위원으로 정말 중요한 상임위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증인 철회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였던 증인 중 김율동 증인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그 요구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요청안

3.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10시11분)

○위원장 윤한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가보훈부장관 직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 또 보훈 정신 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수행 능력은 물론 어느 공직후보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국가보훈부가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리적 보상, 빈틈없는 의료·복지 체계 구축,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등 보훈문화 확산 또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보훈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관련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 또 문제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선서하고 모두발언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은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노트북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윤한홍 선서하고 하시지요.

○柳榮夏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후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권오을

○위원장 윤한홍 서명한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막중한 소임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겸허한 자세로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조언해 주시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아우르는 보훈이야말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보훈부장관으로 지명하신 뜻 또한 보훈을 통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끌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의원 시절에는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을 발의하고, 경북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국회사무총장 재임 시 국회에서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하고,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경우도 있었고, 월남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민주화운동 참여자 보상 확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훈과 관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깊이 새기고 보훈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며 보훈가족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보훈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보상체계 재정립과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훈의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의무복무제대군인이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즉시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임을 맡겨 주신다면 보훈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훈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전의 주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많은 분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그러면 강민국 위원님부터 시작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권오을 후보는 딱 35일, 민주당 대통령선거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딱 35일 역임한 공으로 국가보훈부 후보자의 청문회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료 요구에 대한 충실한, 성실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후보자 가족의 국적,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후보자와 국가 간 직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검증하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는 가족들 관련 거의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상 모든 정보 제출을 거부하고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삼계탕 사업을 하시면서 두 아드님을 잘 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자료 요구에 거부를 할 필요가 없다. 큰아드님이 미국의 엘 세리토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자가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국적 여부에 대한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중에, 답변 중에 적절한 제출이 없다

면 미국 국세청과 미국 이민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드님께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을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충실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민병덕입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은평구 자택의 등기부등본에 대해…… 은평구 자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당을 잡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민병덕 위원 거기에 이항구라는 사람의 채무를 위해서 집을 저당 잡혀 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고봉삼계탕의 채무를 위해 저당을 잡혔다가 그다음에 이 저당권이 황봉 명의로 바뀝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자를 누가 냈는지, 이자의 지급 내용은 어떠한지 이 부분과 이것을……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자기 집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가가 있을 개연성이 있고, 이걸 부정한 대가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를 오전 내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인사청문회든 상임위를 통해서 한 번도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증인이 있습니다. 연합에이애펜 주식회사 대표 김완진 씨인데요. 이분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맹랑합니다, 지방 출장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 그런데 어디로 갔나 보니 제주도에 출장을 갔어요. 제주도는 지금도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출장을 갔나 제가 확인을 해 보니 까, 항공권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증인 채택한 날 바로 다음 날, 7월 4일 날 항공권을 예매해서 제주도로 출장 갔습시다.

지금 국회 경시 태도가, 저는 어지간해서는 기업인들 불러서 증인 채택하는 것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후보자와 고문 계약을 맺은 걸 보면 그 고문 계약에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보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고문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문 계약을 유지해 왔습시다. 더군다나 그 당시 고문 계약이 유지될 때 후보자는 미

국에 체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싶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제주도가 여기서 며칠 걸리는 데입니까? 지금이라도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습니다.

행정실을 통해서 이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거부하면 당연히 이것은 고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연락이 되실 것입니다. 출석하라고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니까?

○李憲昇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李憲昇 위원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려면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이 많은데 자료제출이 매우 부실한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안 온 리스트가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불러 드리고 나머지는 드릴 테니까 후보자께서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삼우건설·고봉삼계탕 코엑스점·원건설·길재소프트 간의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고봉삼계탕 광화문점 개점 이후 현재까지의 종업원 현황이나 인건비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011년 11월에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수입금과 비용처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 또 2014년 2월에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과 비용처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본인께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과 비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전문성과 연관해서 후보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가보훈부 공익사업 참여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지금 자료 요구에 너무 불성실하게 해 주셔서 가지고 지금 인사청문 자체가 진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무위원 하시겠다는 분이 자료제출을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 대단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법 위반, 학교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어서 직계비속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무위원후보자들 다른 사람들도 안 냈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직계비속 초본에 대해서 국방부, 과기부, 환경부 다들 냈어요. 그런데 안 낸 사람이 딱 5명 있습니다.

교육부 이진숙 후보, 아들 해외유학 문제로 논란되니까 그것 제출 안 했어요. 행안부 윤호중 후보, 자녀 2억 증여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것 제출 안 했어요. 통일부 정동영, 태양광이 가족으로 문제 되니까 이것 안 냈습니다. 외교부 조현, 아들 아파트 증여 문제 논란되니까 이것 제출 안 했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이 초본을 제출 안 했어요, 비속에 대한 초본. 그런데 여기에 지금 권오을 후보가 계속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초본, 직계비속의 초중고·대학교 입학·졸업 연도, 학교명, 직계비속의 초중고 학적부, 직계비속의 2008년 이후 주식거래 내역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점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볼 때 인청준비단에는 초본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슬쩍슬쩍 저희한테 알려 주고 있어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과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의사진행발언은 결국은 자료제출 요구 그다음에 증인 출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후보자의 동의가 일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후에 보충질의할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께서도 좀 챙기세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입니다.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세우는 데 많이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수의 가치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출신 장관후보께서는 아마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보훈부에 대한 질타가 좀 필요합니다.

보훈부의 답변서를 보게 되니까 좀 황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결국 이번 대선을 치른 과정이 대통령 파면에 이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분명한 자기 생각이 있으실 텐데 답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장관후보자님의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후보자 확인을 거치지 못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검토를 못 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박찬대 위원 그렇지만 후보자 확인도 없이 이런 답변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후보자께서 보훈부 관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정하게 문책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서류는 직접 검토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12·3 불법 계엄이 보수의 가치에 맞는 일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맞습니다.

○박찬대 위원 민주주의 기반을 지키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는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박찬대 위원 그렇게 분명한 후보의 생각이 있으신데 이런 답변을 냈다는 것 자체가 보훈부가 후보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훈부장관이 되셨으니까 보훈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보훈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까지 친일 청산을 두고 사회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인사청문 서면질의 내용의 4분의 1이 친일 문제일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모 의원이 반민특위 활동이 사회를 분열시켰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민특위……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1947~1948년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 제대로 못 해서 계속 그게 이 나라, 국가의 정기를 세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 맞습니다. 반민특위가 좌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일과 관련된 반민족행위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있었다면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고 뉴라이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갈등도……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훈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훈부가 오히려 친일 행적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이러한 지적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시정해 주셔야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일일이 그것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경북 출신이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박찬대 위원 그리고 안동이 고향 아니십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절반이 경북에서 났고 또 그 절반이 안동에서 났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국란이 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경북의, 안동의 얼마나 많은 우국지사들이 희생을 하고 온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으로 친일과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국가의 정통성이라든가 역사문제를 확실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친일 청산, 내란 종식을 위한 보훈부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보훈부는 불완전한 친일 청산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내란 극복 정신을 계승하는 헌정 수호 책임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12·3 내란 극복일을 정부 기념식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12·3 내란 극복일을……

○박찬대 위원 정부 기념식에 포함시켜야 된다.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실제로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찬대 위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 위원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고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며 정의로운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 갈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하신 말씀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후보자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약 30년 전인 1996년 15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옛날 문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기억납니다.

○허영 위원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당시에 이신범·김명윤·이우재·정의화 의원 외 스물여섯 분이 공동발의하셨고 장관후보자께서도 발의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허영 위원 올해로 28년이 됐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서 사망, 부상, 행불 그다음에 희생자 가족만이 보훈 대상인 민주유공자로 인정되어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이분들이 각각 862명, 441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전태일 열사, 박종철·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받고 있지요?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에 따라서 합당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허영 위원 그래서 지금 민주유공자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유신 반대 투쟁하셨던 분들 그리고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유가족과 또 87년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오늘날의 대한민국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진 그런 민주화 공로자들을 민주유공자법에 따라서 합당한 명예회복과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왜 아직 민주유공자법에 의해서 민주유공자 대우를 못 받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여러 관계 부처라든가 협의해서 이 법이 빨리 제정되고 이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그 법에 따라서 총 932명이 대상자입니다. 아직까지 80세 이상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오체투지, 삭발, 단식, 일인 시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1998년 공동발의를 하시면서 민주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를 하겠다고 하셨던 법 취지의 마무리를 대한민국 보훈부장관으로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두 번째 정책질의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육이오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에게 매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드리고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나이가 90~92세 정도 되시고 또 월남 참전유공자들은 77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이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분들은 이것 자체가 생계유지 수단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보훈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어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줘서, 그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아니면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예우를 조금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2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참전유공자분들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생계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셨을 경우에 배우자한테 승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요즘 시대에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일부분이라도 계승되는 게 없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생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그보다는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영 위원** 보훈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특별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 서거일 추모 기념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광복회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뒤에 계신 어르신이 이종찬 회장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거기 광복회 회원이실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상처가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컨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포함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사이비 지식인이다’ 이런 표현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씨가 저러니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민족정기를 세우는 그런 분들에게 욕설을 하는 이 현상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추천한 것은, 지명한 것은 이념을 떠나서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루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전직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를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왜 그렇게 이념에 따라서 편을 가르실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보훈부장관이 되면 정말 그런 갈등을 넘어서 미래를 위해서, 국민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도 사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에서 의원 생활하신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를 할 줄은 생각을, 상상을 못 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예전에 민족정기의원모임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승원 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어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념 논쟁이 더 켜졌을 그 예전에도 후보자께서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 작업을 하셨고,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승원 위원** 이것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독립유공자 피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를 봤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싶습니다.

○**김승원 위원**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그런 정책 이념과 맥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군의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인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그 작업도 하셨더라고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후보자께서 민족정기의원모임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해 오셨는데 역시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께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친일 그다음에 갈라치기 그다음에 민족정기 훼손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왔던 사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독립기념관장으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을 임명한다든가, 아마 후보자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을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그분 하신 말씀을 제가 다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왜 독립기념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념에 너무 치우친 말씀을 하시고 또 팩트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근래에는 저의 청문회를 준비하느라고 그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팩트에도 안 맞고 이 시대에도 안 맞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 후보자 모두발언에도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국민 사이에 냉소적으로 이런 역사의 부조리 또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그런 냉소와 분노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이를 통해서 꼭 이런 냉소와 분노가 해소되기를, 간곡하게 후보자에게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후보께서는 꼬마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되셨다가 신한국당으로, 우리 당 쪽으로 오셔서 3선 의원까지 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농해수위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리 당 국회의장 계실 때 국회사무총장도 하셨지요? 장관급이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양수 위원** 이번에 또 당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전문성도 없는 보훈부장관 시켜 준다니까 얼른 지금 나서게 되셨지요? 대표적인 보은 인사로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에서 봤을 때 ‘아,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풀이 아니고 풀뿌리까지 먹어 치우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2008년 정운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후보자께서 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적격한 인물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딱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의 인사청문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선거 보전비용을 미반환하고 급여를 쪼개기로 받고 논문을 표절하는 등 많은 의혹 제기로 먹튀다, 지식 도둑이다, 흥길동이다, 분신사바 후보자 등 많은 별명을 언론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 이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많은 정책 검증하고 계신데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단 선거 보전비는 3억 6000 중 당시에 9000만 원을 바로 반납했고요. 근래에 들어와서 하도 지켜보던 집사람이 딱하다면서 5000을 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양수 위원** 선거 보전비용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셔서 가지고 금품을 제공하셔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어요. 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때 일부만 내시고 2억 7000만 원은 반환을 못 하셨어요, 쪽 이어서요.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문제 제기를 6월 28일 날 했는데 단 이틀만인 7월 1일 날 5000만 원을 급하게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는 또 반환을 하겠다 그래요.

장관후보자로 임명 안 되셨다면, 인사청문 대상이 안 됐다면 아마…… 이거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요. 1년만 더 버티면 안 내고 그냥 넘어가겠지요. 저는 1년 안에 후보자가 2억 7000만 원을 갚았을 것이라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이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 정말 죄송하게 됐다, 여러 가지 이유 들면서 내가 조속히 납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재심은 4년 전에 대법원 판결 났을 때 그때 신청하는 거지 4년이나 그냥 돈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재심 신청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면이 되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다, 처음 해명과 두 번째 해명이 또 바뀝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급하게 반환을 5000만 원만 하고 사면을 핑계로 실수였다고 하는 것이 아까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후보에게 얘기했던 도덕성과 준법성 이런 것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이따 다음 기회에 질의하겠지만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후보자 사퇴를 조용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시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선거 보전비 관계는 전적으로 제가 선관위에 직접 연락을 못 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이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당시는 2020년 총선 선거 부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한 이삼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9000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못 하다가 이번에 하도 보기 딱했든지 집사람이 통장 하나를 꺼서 일단 그 5000만 원을 했고요.

재심 문제는 그때 재심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직 아무것도 안 할 텐데 굳이 같이 있었던 사무처장을 고발하고 법적인 다툼을 해야 되느냐 말렸기 때문에 저도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었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허위 공문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허위 공문이 맞다, 도장 결재가 허위 공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재심을…… 4년 전에도 검토를 했었고 이번에도 그러면 차제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 보자, 결과가 계속 그렇게 내가 유죄고 반납을 해야 된다고 나오면 바로 반납을 어떤 식으로든지, 분납하든지 하는 거고요. 그게 결과가 바뀌면 오히려 났던 것을 반환받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은 전적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암 투병 하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선거 부채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2020년경에 많은 선거 부채를 지셔서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도 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다 처리를 못 하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처리 못 하고 또 은행으로부터 부채를 내 갖고 빌렸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렇지만 재심을 계획 중이시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토한 후에 그 전이라도 어쨌든 계속 납부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올해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돼서 광복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10주년 10주년 그럴 때가 좀 의미 있는 해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해에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만큼 후보자님께서 국민통합, 국가통합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대부분의 준비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탄핵 정국이라든지 조기 대선을 거치면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요. 특히 광복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념사업추진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총 79개의 기념사업 중에서 24개를 담당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보훈부의 역할이 지금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보훈부가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만큼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즉시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제가 80주년을 비롯해서, 위원회가 출범이 되지 않아서 총리님께 엇그제 이틀 전에 빨리 국무조정실에 위원회 출범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훈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투사 유해봉환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 지금 협조 요청을 한 상태고요. 다른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보훈부에서 할 일은 차질 없이 전부 다 준비를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체크를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문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해봉환 사업의 경우에 보훈부도 올해 초 업무보고 당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국외에 안장되어 계신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다섯 분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계신다고 하지요. 하지만 서울현충원은 임정 요인 구역을 제외하고는 독립유공자 묘역이 현재 만장된 상태고 대전현충원 역시 독립유공자 묘역은 현재 10기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전현충원도 곧 만장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서울과 대전현충원을 제외하면 독립유공자 묘역이 부재한 상황인데, 그래서 독립기념관 내 유희부지를 활용하는 등 독립유공자 묘역을 포함한 추가 묘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 의견 어떻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장 대상자하고 남아 있는 묘지하고는 몇만 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하든

지 현재 연천에 또 하나 현충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빨리 시공해서 착공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79개 사업 중에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16개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권 중심이고 전국 단위, 특히 지역에서 하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지역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그게 지역으로 다시 재배치가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지금 광복 80주년이긴 한데 국민인식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홍보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훈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란이라든지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사실 준비가 약간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80주년이 올 12월까지 되는 거니까요 이 사업에 혹시 미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있다면 8·15 즈음에 못 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후반기에라도 할 수 있는 행사들은 최대한 해서 광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출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모두발언에서 후보자께서 이번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뜻을 ‘보훈을 통해서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국민통합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드리는데요.

지금 국가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격상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 보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보훈부가 부가 되었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아직도, 시간이 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일상생활에 보훈부가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보훈부가 처에서 격상된 그 의미가 국민들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무위에 와서 보훈부를 담당하고 나서도 장관님들과 많은 공무원들 만나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 보고 질의를 해 보면 저는 공무원들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답변의 내용과 질, 태도들이 전혀 부로서 공무원으로서 위상에 맞는 그런 내용과 형식과 품격을 많이 갖추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살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로 격상된 이후 두 분의 장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 첫 번째 초대 장관님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 코드 역사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부로 승격된 의미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에서 예전에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는데 한 몇 분 정도가 활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 1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깎아내렸던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라는 김낙년 씨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씨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문제를 자기연민과 한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PPT 하나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나왔는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발언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 자리에서 또는 밖에서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활동하고 공직에 계시면서 보훈의 의미, 독립운동의 참된 가치를 훼손해 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인데 이 당시, 임명될 당시에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임명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아마 그 당시에 세세하게 지적된 사안들을 다 알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당시에 지적되었던 임명 과정의 투명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던 절차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아직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지만 만약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내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은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된다 이게 평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법 자체가 아직까지 그게 입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나중에 알박기라든가 이런 시비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25일 날 기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독립기념관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 조치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탄핵과 내란을 극복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후보자님,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로서 검증하는 자리니까 조금 불편한

애기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추경호 위원 이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13일 유세 때 후보자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5월 12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그때 ‘대통령 각하, 육영수 여사님!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기사가 언론에 나니까 ‘후보자께서 언제 무속인이 되었나’, ‘저렇게 한자리 하고 싶을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보은부장관후보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대통령실에서 보훈부장관후보자로 발표하면서도 국민통합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국무위원후보자들이, 국무위원들이 국민통합을 해야 되지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보훈부장관으로 특징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끌 후보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후보자는 보훈 경력이 하나도 없다, 역대 이런 보훈 수장이 없었다,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보훈을 다루는 국방위·정무위의 경력도 없고 또 역대 정부 보훈 수장 가운데 군이나 보훈 유관 경력이 없거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아닌 인사는 권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역대 33명에 관해 다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PT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비판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지명되고 나서 바로 첫 일정이 어디였느냐, 외부 일정이?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집회였습니다. 이 지역의, 당시에 경북의 청송, 의성 등등 산불 피해 주민들이 와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때입니다.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법을 내고 벌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이런 때입니다.

보훈부장관후보자로 보훈 현장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훈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 현장을 가신 겁니다. 정치적 행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관 취임도 전에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벌써부터 잣밥에만 관심이 있다, 보훈부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스펙 쌓기용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훈부가 정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보상·보호, 보훈 선양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훈부장관후보자가 아니고 바로 후보자께서 오심으로써 보훈부가 보은부가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보자의 경력, 언행, 생각 이런 것을 보면 보훈부장관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경북지사 출마 뜻이 있고 정치활동을 보훈부장관 하시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없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런데 바로 이런 행동들 그리고 처음에 대선기간 중에 이렇게 대선후보자를 향해서 지나친 행위를 하니깐 과연 보훈부장관 업무를 수행할 분으로 적합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훈부장관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위원장 윤한홍 무슨 내용이지요?

○김용만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한홍 예.

○김용만 위원 보훈부에서는 아까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정무위에서 제기가 됐던 내용들, 얘기가 됐던 내용들을 후보자님께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점심시간 통해서라도. 오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위원장 윤한홍 시작하십시오.

○김용만 위원 후보자님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역사관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백범 김구 선생의 국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대한민국입니다.

○김용만 위원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용만 위원 그리고 일제강점기 선대의 국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제강점기에……

○김용만 위원 우리 선대 어르신들의 국적.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국적도 한국입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임시정부 헌장이나 그다음에 제헌헌법의 전문에 보면 1919년에 나라를 세웠고 정부는 임시정부 거쳐서 48년 정식 정부가 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919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향간에서는 8월 15일, 그러니까 1948년이지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국절 논란이 있습니다. 이 건국절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가 1948년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9월 1일이 관보 1호인데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말씀을 빌려서 우리 이 논쟁은 이제 마무리하자, 마무리하고 임시정부 그다음에 군정 한 이삼 년 거쳐서 정식 정부 그리고 국호 대한민국은 1919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건국절 논란 그리고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보수정당 출신이십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렇지요? 보수정당 출신 인사시고 또 말씀 주신 걸 들어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건국절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출범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절 논란은 매우 소모적 논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이나 역사적 출발점을 흐리는 아주 안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부.

제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이렇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국민통합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답변이라고 이렇게 갖고 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김용만 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질의를 하고 요청, 서면자료 요구한 것들이 526건이어서 후보님께서 직접 다 못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장관후보자가 생각하는 건국절에 대한 이념이, 설명이 보훈부에서 온 이 서면답변에 있어서 너무 간극이 큰 것 아닙니까? 보훈부가 후보자님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 오면 안 됩니다.

이것 답변 누가 작성하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확인 못 한 불찰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용만 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용만 위원** 그리고 홍범도 장군 홍상 이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것도 한참 논란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 왜 그런 논란이 일어날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홍범도 장군의 행적은 우리나라 정체성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하므로 재점검이 필요하다’, 재점검 필요하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없습니다.

○김용만 위원 홍범도 장군께서는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용만 위원 봉오동·청산리전투 같은 것은 이미 우리 자긍심을 드높이는 역사로 자리매김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김용만 위원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지명 축하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인사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관과 정반대편에 있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분들을 수장으로 자꾸 임명을 했어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독립기념관법 제6조 1항 3호 보면 ‘독립기념관장은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에 힘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8·15는 광복절 아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시작이 아니다, 친일인명사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즉 법상 규정된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 해임 가능하냐? 그런데 보훈부에서 내 온 답변을 보면, 독립기념관법에 임명 절차는 규정되어 있는데 해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략 해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하고 좀 곤란하다고 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훈부 쪽에 뭘 물어보면.

그런데 말하자면 해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2011두5001 판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임 규정이 없을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해임 권한이 있다, 해임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한테는 해임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립기념관법으로 돌아가 보면, 독립기념관법 보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해임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제청권도 보훈부장관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훈부장관이 되시면 김형석에 대해서 이 독립기념관법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제청권자로서 해임을 건의하시고 대통령이 해임하실 수 있어요, 저의 법리해석으로는. 임명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가 해 왔던 일들…… 어떤 일들을,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법에 규정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지도감독권을 활용하셔서 분명하게 검토 후에 제청권자로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제까지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아직까지 그분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그 판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검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제가 관련 자료는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께서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과정 관련해서 숙지를 하시고 오후에 질문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청산 과제 하나 더 있습니다, 리박스쿨. 국가보훈부가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라는 단체에다가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 회장인 신철식 씨 뉴라이트 연합 조직인 우남네트워크 상임고문이고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역시 같은 시기 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 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한교조, 우남네트워크 등을 리박스쿨에서는 협력단체로 공식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승만 포럼, 스피치대회 하는 데 리박스쿨이 여기에서 그와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과 동고동락 관계다, 심사위원 했고요. 자손군 이런 데도 다 같이 스피치대회에 왔는데 이 스피치대회 등에다가……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지원 내역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탄신 기념식, 서거 추모식, 나라사랑 가요제 이런 데다가 돈을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장관 취임하신다면 이런 단체에 대한 역사편향성 검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조금 지급 기준 정비, 지원 이유, 사용처 점검 이런 부분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잘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전혀 제가 동감을,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먼저 지명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 질의와 중복되는 것을 빼고 정책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관련된 건데요.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정부에서 1인당 월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추가 수당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거주지역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현정 위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저게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분포도인데요. 최소 12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5배 차이가 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참전유공자들은 수당이 더 많은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이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래서 동일한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이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우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PPT 보시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주체는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수당 지급 주체가 국가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참전수당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게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입니다. 많은 편차가 있지만 충남의 경우 광역과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44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국가가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9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는 충남을 기준으로 해서 이 99만 원 중에서 국가가 적어도 90~95% 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급액을 최소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이 적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남은 상당히 많은데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해 가면서, 물론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보훈부 예산으로 상향 조정을 해 가면서 상향 평균화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똑같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격차가 있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격차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회의에서도 그런 기조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장관에 취임하게 되시면 반드시 국가의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또 마찬가지로 참전명예수당처럼 보훈단체 상대로 지급되는 운영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국가가 운영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고 선양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이 세 가지로 국가 운영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PPT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광복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성남시는 1억을 지급하는데 남해군은 1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 예산에 따르면 지부의 사무직원 인건비가 월 17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도 낮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전 장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댔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역시 지금 지부 기준으로 월 51만 원이고 지회 기준으로 월 2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훈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랑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영비도 지부가 월 한 100만 원 그리고 지회도 월 50만 원 이상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에, 저도 놀랐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재정을 동원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서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되도록 애를 쓸 거고요. 운영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훈부 예산이 들여다보니까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 ‘아, 예산이 참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여야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제가 찾아뵙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 보훈부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공감할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장관에 취임하면 장관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 정부 안에서의 그런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권오을 후보님은 지조와 의리의 고장 안동 출신이시고 또 안동의 명문 안동 권씨의 후손이신데 걸어오신 정치적 궤적을 보니까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철새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치를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민주당, 첫 국회의원선거는 통합민주당 그다음 두 번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그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그리고 최근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통합본부장으로 구미 유세 지원 가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는 철새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보기 민망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후보에게 지적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주로 돈과 관계된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선 후보 본인이 여러 사업체 법인으로부터 급여 수령을 쫓 해 왔었어요. 의정부에 있는 신한대학교, 부산의 구산물류, 서울의 강남·종로에 있는 유니언에프앤비, 고봉삼계탕, 연합에이앤피, 23~24년 여러 법인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는데 실질적인 근로의 정확이 없어요.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근로의 대가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이 없고 자료도 제출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직 국회의원이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한 동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갑질 동냥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관계된 어떤 사업체의 대표를 한번 부르려고 그랬더니만 제주도로 출장 갔다 그래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한홍 위원장, 강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이 갑질 동냥은 후보뿐만 아니에요. 저도 놀랐는데 배우자께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삼우건설…… 고봉삼계탕은 아마 뭔가 운영에 직접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표에는 없지만 보면 배우자가 2020년도부터 대전 소프트웨어 회사 길재소프트, 경북 안동의 삼우건설, 원건설로부터 급여를 계속 수령해 왔어요. 배우자께서 실제로 근무하신 게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니지요. 근무하지 않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니, 맞습니다. 길재소프트는……

○김상훈 위원 여기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만 먹어도 그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조금 이따 답변 시간을 좀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우리 국민들께서 이야기하는 실질적 근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동냥질이라고 봐요. 이것도 갑질 동냥이다.

○유동수 위원 말씀을 좀 잘하세요.

○김상훈 위원 잠깐만요.

○강민국 위원 들어 봐요, 들어 봐.

○유동수 위원 품격을 좀 유지하셔야지요.

○강민국 위원 남 질의하는데 왜 그래?

○김상훈 위원 그리고 대학교 강의를……

○이인영 위원 반말하지 마.

○강민국 위원 들어 봐요, 들어 봐. 남 질의하는데 왜 그래?

○김상훈 위원 시간 빼세요.

○김승원 위원 간사님이 반말 비슷하게 하세요.

○강민국 위원 저희들도 여태까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김상훈 위원 대학교 강의를 하셨는데……

○김남근 위원 반말하면 안 되지요.

○김상훈 위원 질의하고 있잖아요. 반말한 적 없습니다.

시간 좀 빼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준현 잠깐 시간 정지해 드리세요.

○김상훈 위원 대학교 강의를 하셨는데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4년, 신한대 특임교수 2년 4개월, 76개월간 재직했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이 두 대학교에서 무려 1억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한 명도 가르치지 않았고 강의 실적 없고 연구 실적 하나도 없는데 1억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무슨 답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사업체에서 최소한의 급여를 받았다면 분명히 고용계약서나 고용약정서가 존재할 겁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돌이켜 보세요. 3선 국회의원하시고 국회사무총장까지 하셨는데 이런 여러 사업체의 법인에 실질적인 근로조항 없이 계속 급여를 받아 왔다는 것 이것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번 조용히 판단해 보시고 거취도 결정하시는 것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대리 강준현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우선 집사람은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길재소프트, 삼우건설. 집사람은 그 앱 회사에,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기 때문에 마포 사무실에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동 삼우건설 마찬가지로 가끔 내려가면 기업의 홍보 그다음에 영업 거기에 대해서 실제 역할을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월 한 150 정도 고문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 했을 때는 그 기업의 영업 자문, 비상근입니다. 영업 자문 또는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커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상담도 합니다 했는데 커피 이야기만 딱 나온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저 스스로 참 부끄럽게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에 500, 1000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150 받는 이 자체가 남한테 참 공색하게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 당시에 실제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정리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위원 후보자님, 여기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 이렇게 승격됐는데 이게 공무원들에게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에게 좋으라고 보훈부로 승격한 게 아니라 보훈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잘 하라고 승격한 것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제가 봤더니 예산이 보훈처일 때 5조 8530억 원이었는데 보훈부가 되어서 6조 4800, 약 60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보훈부 정원도 311명에서 337명으로 26명 늘었는데요. 그런데 이 높아진 보훈부 위상에 맞는 보훈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실망이라는 얘기를 오늘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인 보훈부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 주십사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2명의 보훈부장관 계셨는데요. 한 분은 이념 논쟁만 하시다가 선거 출마하신다고 그만두셨고 또 한 분은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의 손자며느리라는 이유로 경영학과 교수이신데 보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보훈부가 오히려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보훈부장관이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25년 6월 30일에는 이승만 찬양 스피치 대회를 보훈부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보훈부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것 아니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원이 보훈의 정체성에 반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훈의 3요소가 독립, 호국, 민주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의 보훈은, 호국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호국만 얘기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도 폄훼하고 민주도 폄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을 그렇게 반대했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홀대를 해 왔지요. 저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보훈의 정체성하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오셔서 저희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답변들을 보면서 후보자의 의지가 명확히 보이지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후보자께서 중점 추진사항으로 다섯 가지 내놓으셨는데요, 좋습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것,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에 대한 것, 80주년 광복 기념행사 잘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 잘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훈정책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보훈의 정체성이 훼손됐는데, 그 보훈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실질적인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지적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훈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보훈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제까지 내부에서 차관, 장관 발탁이 없어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이번에 마침 내부에서 차관이 발탁되어서 일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덕 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고 좀 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작년 국감에서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엉망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고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보훈부가 245억 원을 들여서 제2 독립기념관을 종로에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변경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서 보훈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보훈정책과 관련해서 보훈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하신 말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임 장관 두 분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만나 뵙기도 하고 말씀도 들어 보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박범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대한민국의 보훈부장관의 자격이 넉넉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께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또는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항 중에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겹치기 출연을 했다 또 해외에 있을 때에도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들이 다 비상근이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비상근이라 하면 근로시간과 장소와 근로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 전형이 없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께서 평생을 정치를 했고 또 상임위원장을 했고 국회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만이 갖고 있는 소위 어떤 자질적 노하우와 관련돼서 해당 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자문을 하면 되는 거지요.

소위 법원이 판례에서 점임 금지, 그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료도 14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여러 업체로부터 후보자가 평생 익혔던 노하우와 자질과 능력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근로의 제공을 했다는 것은 크게 탓할 바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그런 생각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 취지로 이번에 인청에 임하면서 답변서도 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 사실 청문회 준비하면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부끄러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월 150 자문하고 고문한 내용에 계속 겹쳐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을 지적받는다든 자체가…… 차라리 자문료·고문료 많이 받고 한두 군데 할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이 ‘일반 국민들, 특히 직장이 없는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처신에 조금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140만 원, 150만 원…… 500만 원, 억도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거대 로펌에서 받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그건 모릅니다.

○박범계 위원 20억에 달합니다. 그런 측면……

역사관에 대해서 하나 묻습니다.

저는 이 보훈이라는 것의 3대 이념적 가치가 있는데 그 독립 호국 민주 중에 독립이라는 가치, 이것은 소위 여와 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의 분열을 극복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 일제 36년이라는 강점의 기간이 진보를 했던 보수를 했던 우리 민족,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지 않지요.

그런 면에서 보훈부장관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될, 대통령을 보좌해서 이루어야 될 책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동의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런데 독립기념관법,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독립기념관법에 의하면 우리 민족의 외침 극복의 역사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된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김형식 독립기념관장,—오늘 많이 언급됐습니다.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갈등을 봉합해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 상처를 헤집

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신장식 위원이 잘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사라는 해임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해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박범계 위원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역사를, 그 아픔을 헤집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금을 뿌리는 이 역사관에 대해서 뭔가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처방은, 후보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인사는 좌든 우든 그 당시의 공적을 심사해서 다 서훈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유공자로서 기려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박범계 위원 잘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대리 강준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김재섭 위원께서 성대 수술을 해서 지금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할 건데 질의서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맨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준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는 당파를 떠나서 과거 보수 정당에서 활동했던 후보자를 내각에 합류시켜서 우리 국민통합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통합을 이끌고 또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강준현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기용함으로써 역사 논쟁이 야기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간 보훈부가 2023년도에 관동대학살 100주기 기념 전시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고 또 일본 전시에서는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독립기념관 이름을 빼라 이렇게 하는 거라

든지 광복회의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아니면 매년 주최되는 광복절 기념행사를,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주최 행사에 관장이 가는 바람에 이 행사를 취소해 버린다는지 아니면 김형식 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과 명예회복을 언급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거에 보훈부가 보훈부 수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 논쟁에서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부분에 관해서 조금 다른 행보를 한 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게 그분들을 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훈부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유동수 위원 김형식 관장님이 이 정무위에 나와서 제가 작년도 8월 26일 날 ‘1945년도에 우리 광복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느냐?’ 이랬더니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질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날로 쓴 것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헌법전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우리의 역사적 인식과 가치를 국민적 합의로 녹여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동의합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념적 가치, 역사적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답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저한테 작년도 8월 달에 답변했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계신지 아니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대한민국헌법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관님으로 취임하시면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이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단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조만간에 한번 만나 뵈려고 그러합니다. 만나 뵙고 그분의 생각, 평소의 행……

○유동수 위원 예, 만나 보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들어 보시지요.

그리고 보훈부 내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더 이상 역사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보훈부를 통해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결과적으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갈등 요소가 많았고 실제로 갈등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보훈은 통합을 위한 계기로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어디를 가도 언행 좀 조심하고 좌우 가리지 않고 한번 경청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먼저 후보자로 지명된 걸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서 나라에서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지켜져야 될 국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보훈부장관은 이에 따라서 그 보훈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5년 6월 25일 날 후보자께서 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훈 업무는 생소하고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분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저는 수습 사무관 얘기는 들었어도 수습 장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아마 지명되고 난 다음에 보훈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훈부 슬로건이 뭘니까, 원래?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전략과제도 아마 파악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관후보로 지명되시면 산불 현장을 가시는 게 아니고요, 업무 파악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 주시지요.

보훈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건 이겁니다.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역군인 사이에서는 정작 실질적 희생자들은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후보자께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인정에서 배제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제1연평해전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 여기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좀 달라서……

○柳榮夏 위원 아니,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유공자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고받으셨으면.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보훈부에서 답변하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공식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 보실까요?

저겁니다. 당시 갓 스무살이 넘은 참전 장병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총 든 채로 우리 배로 넘어올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면 나는 바로 죽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먼저 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고 대치 상황을 겪다 보니 나중에는 쏠 거면 빨리 쏜 것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유언장을 쓰라며 연필 한 자루랑 종이 한 장씩을 받았다. 뭘 써야 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초코파이와 콜라를 배급받으며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그들의 회상입니다.

이 참전 장병들 중에 8명은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파편상, 골절 등 부상도 입었어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PTSD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외상을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별도의 정신적 치료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이 제1연평해전은 우리가 이긴 해전입니다. 우리는 고속정에 일부 손상이 있었고요 가벼운 경상자가 있는 반면에 북한은 어뢰정이 침몰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승전한 해전에 참여한 병사들,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 사람들이 왜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공식 유공자로 제1연평해전 참가했던 군인들이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의아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되면 이 문제 최대한 풀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지금 보전비,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사면·복권이 되면 비용 반환 의무도 없어진다 이래서 반환 안 한 거지 일부러 반환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가 사면·복권된 건 지난 2024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반환을 안 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전에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

○柳榮夏 위원 까지 어려워서 반환 못 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柳榮夏 위원 좋습니다.

PPT 5번 좀 띄워 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비상근 고문료 150만 원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달은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로 반환할 의지가 있었으면 단돈 500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0만 원이든 반납을 했을 겁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보훈부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지난 1일에 5000만 원 반환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송구스러울 따름이고요.

단지 한 푼도 안 냈다는 말에는 바로 9000만 원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이 생겨서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었고 저는 또 실제로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 있었습니다. 사면·복권되면 그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집사람 저금이 그렇게 있는 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얼마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있는 줄은 몰랐고, 그런데 집사람이 딱해서 통장 하나 꺼서 일단 좀 성의라도 표시해라 그래서 이번에 이것 5000 제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2억 7000 중에서 5000만 원 하고 2억 2000이 남은 거네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그것도 다 갚을 예정인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3억 6000 중에 이제 1억 4000은 갚았고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2억 2000 남았으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2억 2000 남았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이 되면 제가 이 자료를 갖다 드릴 텐데, 왜 재심을 해야 하는가…… 재심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갚아야지요. 당연히 갚아야지요.

○위원장 윤한홍 갚으세요. 그게 장관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후반 질의 1분을 먼저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그것은 오늘 다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예외를 안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뭐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아니, 이유를 얘기해야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그 당시에 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재심 신청 이야기를 하니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아서……

나중에 또 질의하실 때 하십시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계획된 질의를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시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오늘 잘 해명하셔서 장관으로서 소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할 테니 역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전문에 따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확히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법통으로 하고 1948년은 정부 수립일입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후보자께서는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12·12와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보훈은 헌법 정신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적 보훈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강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보훈업무에 대한 행정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견 조금 미숙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역사의식과 국가관, 보훈의식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서 보훈부장관에 더없이 적합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훼손했습니다.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역사적으로 검증된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주요 인사들은 홍범도 장군의 홍상 육사에서 이전하려고 했고요. 김형식 독립기념관장과 박이택 이사, 이 사람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인사입니다. 그런데 보훈 요직에 앉혔습니다.

독립운동의 가치와 항일역사 서사의 공공적 계승을 체계적으로 축소·왜곡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광복 80주년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단체를 배제한 채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만 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죄송하지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본군위안부는 매춘이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식의 역사 부정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의원도 몇 분 계십니다.

백선엽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표현 삭제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던 친일귀속재산 일부를 친일파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보훈 행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소년들의 명예를 국가가 스스로 짓밟았던 게 이전 정부입니다.

윤석열 본인은 지금도 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 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헌법과 국가정체성 수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그 정부가 오히려 헌법과 보훈 가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 기조가 국가의 헌법적 정통성과 보훈철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타깝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념에 의해서 보훈정책을 하다 보니까 사회갈등을 오히려 증대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강일 위원** 좋습니다.

친일 인사를 보훈 인사로 앉히고 독립운동 정신을 축소하는 정책과 그런 인사에 대해 장관후보자로서 문제의식과 대안 갖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강일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훈을 이념 갈등과 정치 편향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문제의식과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강일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또 그 내용을 들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훈정책에서 독립운동의 가치가 후퇴하고 친일 뉴라이트 관점이 강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인정합니다.

○**이강일 위원** 보훈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인사에 대해 재검토하거나 해임을 건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점은 아직까지,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맞다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적 가치 위에 서 있는지, 보훈이 어떤 철학을 품고 있는지, 국가의 품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몸소 보여 주는 장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보훈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해 오셨어요. 보훈의 탈정치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적 가치의 회복, 국민 통합을 위한 환골탈태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 아까 것 포함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결과적으로 보훈 문제에 대해서는 정권, 정부에 따라서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어떤 이념이랄까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했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공적을 가지고 우리가 수훈을 하고 서훈을 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또 세월이 조금 바뀌었다 해서 다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강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한창민 위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권오을 후보자님, 겹치기 근무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보다 해명과 발언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민들께서 후보자님의 발언이나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후보자님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훈정책의 책임자고 그리고 새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커피 한 잔 하는 것도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기억합니다.

○한창민 위원 그렇게 적게는 14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을 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그런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2인 맞벌이 기준으로 4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돈을 벌려고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자문료 이렇게 쉽게 벌어서 가지고 생활을 영위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한번 짧게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심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변명조로 한말씀 드리면 ‘비즈니스할 때 미팅에서 커피도 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딱 나가서 저도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보훈정책이 이념 갈등을 유발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보훈정책은 뉴라이트 역사관 강요 정책이었습니다. 박민식, 강정애, 박이택, 김형석, 김낙년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앞세워서 보훈을 왜곡하고 훼손한 사건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훈부장관은 내란 세력의 역사관을 정확하게 청산하고 독립·호국·민주 역사를 바로잡고 그리고 명령과 유가족 예우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보훈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사 인식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보훈부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실천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업무 파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짚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작년 3월 1일 날 외교 독립운동을 강조하자마자 졸속으로 245억 기념관 사업이 생겨났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재단에서 2억의 용역을 받아서 챙겼고 외교 노선을 펼친 이승만기념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었습니다. 국회가 사업 내용에 문제 제기하고 변경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졸속 추진 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밝혀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만약 취임하면 살펴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두 번째로 윤석열 정부 시기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3년간 8500만 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경북지부가 2023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승만기념사업회가 학생들에게 사사오입 개헌으로 탄생한 자유시장경제체제라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추천하고 실제로 뉴라이트 건국절 주장을 주입하고 이승만 장기 집권을 비판하는 교과서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경북지부는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백선엽 동상을 기념 건립했습니다.

이렇게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활동에 국민의 국고가, 그리고 보훈 정신이 깃들어 있는 보훈부에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문제를 살피고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장관이 되시면 두 가지는 꼭 살펴 가지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사태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상황 보고받으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어제 이야기입니까?

○한창민 위원 보고 못 받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창민 위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우리 의원실에도 영천 산청 임실 제주 등 묘지 침수 실태를 제보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2년에 보훈부가 국립묘지 묘역 물고임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총 76억 원의 예산 계획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천호국원에서 12억 원, 임실호국원에서 7억을 써서 물고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는데 이후에 2023년, 2024년 5·18민주묘지에서도 침수 피해가 연이어 발생했고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보훈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매우 부실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이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본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들이나 유가족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고 분통을 터뜨리고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수의 유공자의 유골함이 침수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보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대통령님과 상의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보훈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정의를 떠나서 오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기존에 국가보훈부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독립과 호국과 민주, 이 세 가지 정신을 보훈의 3대 요소로 설정하고 그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국가보훈부의 독립과 호국과 그리고 민주, 이 3대 요소에 대한 정신적 혹은 역사적 정립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부처보다도 국가보훈부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정기, 역사적인 정신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온 표현 중의 하나를 예로 들면 호국 외에 나머지는 소홀히 여긴다거나 또 호국과 독립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부분들을 대립시킨다거나 이런 유산, 유재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그때 정책적·정치적 방향들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혼란 이런 것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 그리고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정기, 역사적 정신과 관련한 분명한 확립·정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 스스로 아직까지 보훈이, 또 보훈업무가 몸에 체화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몸에 보훈 정신, 국가정체성이 체화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대한민국의 정기, 역사적 정신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보훈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어떤 정권이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 그 이상의 가치를 넘어선 차원에서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점을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강조하고 또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원호처, 보훈처 이런 시절을 넘어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업무처리 능력이라든가 또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른바 세평으로 있습니다. 보훈부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제까지 아마 보훈부가 보훈처로 있다가 부가 된 지 얼마 되지를 앓고 그다음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직제도 조금 부족한 걸 파악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에서 자체 발탁 승진이 좀 적다 보니까 보훈부 직원들의 사기에도 그런 것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관인 저 스스로부터 제 능력을 키우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만 직원들에게도 동기유발을 충분히 해 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낫고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직제나 승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인센티브 또 의욕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민국의 이것을 지킨다 이런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보훈부의 소속원들이 일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명성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이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맞이할 큰 행사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8·15 광복절 행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남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머릿속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우리 보훈부에 관계되는 일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가 좀 늦어서……

○**김남근 위원** 특히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에요.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남근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만 국무총리실과 보훈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어요, 올해 80주년 광복절 행사를 위해서.

작년에 8·15 광복절 행사가 파행이 났던 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광복회를 비롯해서 그런 독립운동 인사들이 8·15 광복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건지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김형식 같은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혀 놓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시정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항의의 의사 표시로 참가하지 않은 그런 게 있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남근 위원** 올해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계속 김형식이라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아 있는데 광복회 인사들이 또 8·15 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직 그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없고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지만 아마 올 8·15 행사에 지난해 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진 않을 거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김남근 위원** 후보자님이 너무 나이브(naive)하게 생각하시는데 독립운동을 해 오시거나 그 자손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광복절을, 국가가 그 행사를 치르고 그걸 역사적으로 기념한다라는 것들은 거의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 걸, 1945년 8·15 광복을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아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 이것들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사리 그 입장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독립기념관장 문제가 해결되어야지요, 8·15 광복절 행사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일작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읍소를 하시든지 왜 여기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왔는지 그런 것 한번 얘기도 들어 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런 것 얘기를 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다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제대로 잡고 독립기념관이 그런 뉴라이트 인사들이 와서 역사왜곡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광복 그런 역사적인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을 올바로 계승하는 그런 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면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찬찬히 살펴보고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찬찬히 살필 시간이 없어요. 지금 8·15 광복절 행사가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독립기념관장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요.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파악해 봤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다라는 얘기, 그것은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거다’ 45년 8·15가 광복절이라는 것은 역사를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예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 방금 나온 화면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우리 헌법에는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비로소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일제시대 때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을 선조로 모시고 그런 것들을 계승하겠다는 거 하는 광복회 회원이나 이런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독립기념관장으로 그런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일제시대 때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그렇지요? 우리의 국권은 계속 있는데 그게 침탈당한 거지 우리가 일본 국적이 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남근 위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광복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독립기념관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제일 먼저 할 게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8·15 경축 행사도 8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유념해서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부산 부산진구를 출신의 국민의힘 이현승 위원입니다.

권오을 후보자께서는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저희 보수 쪽에서 활동해 오시다가 대선 두 달 전에 민주당으로 전향을 하셨습니다. 대선 후에 이렇게 야당 위원과 국무위원후보자로 마주하게 돼서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청문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또 보훈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정책 전문성 그리고 우리나라 보훈 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먼저 도덕성에 관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보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적 역량이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전문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정무위나 국방위

에서 한 번 일을 하지 못했었고요. 관련기관에도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중에 상당수가 보훈가족이고 보훈대상자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어려움, 애환은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이 일을 맡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 이분들도 보훈대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회의원 재임 12년 동안 하시면서 보훈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대표발의한 것이 2개 있고요. 공동발의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李憲昇 위원** 제가 보니까 후보자께서 12년 국회의원 시절에 공동발의하신 법안이 642건인데 그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것 1건 포함해 가지고 9건 정도 되고요. 보훈 관련 3건을 대표발의하셨는데 통과된 건 경찰공무원법 개정법 그거 하나뿐입니다. 정말 후보자께서 보훈부장관이 되고자 하시고 그런 역량이 있다면 12년 국회의원 재직하면서 평소 보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재명 정권에서 초대 보훈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단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갈등, 분열을 넘어서 국민통합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저를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통령께서 권오을 후보자를 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은 국민통합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동안 쪽 보수정당 계열에서 활동을 해 오시다가 두 달 전에 전향을 해 가지고 민주당 대선캠프에서 두 달 동안 활동한 보은인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처음에 지명 소식을 들었을 때 대통령께서 지나가는 말씀이라도 말씀은 꼭 지키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정말 지금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라고 저를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오늘 오전에 민주당 박찬대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셨어요, 국민주권정부 세우는 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주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보은인사임을 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부분 보수정당 계열에서 활동해 온 후보자가 보수를 배신하고 대선 기간 2개월 동안에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활동한, 전형적인 대가성 보은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참고로 제가 새누리당 탈당한 지 한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었고 무소속으로 지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 전에 제가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생활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李憲昇 위원** 바른정당 계열도 보수정당 계열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보수정당 계열이라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무소속, 결이 조금씩 달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李憲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에 또 다른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김재섭 위원이 지금 건강 때문에 질의를, 유명하 위원이 대신 대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은 여기서 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柳榮夏 위원 후보자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 질의 중에 나왔는데 2025년도 보훈부 슬로건이 됩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죄송합니다.

○柳榮夏 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점심시간 때 확인도 안 하셨어요?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멈춰 주세요, 시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셔서, 최소한 성의를 가졌으면 오전에 질의가 나왔으면 확인하는 성의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한창민 위원으로 기억되는데 어저께 JTBC 뉴스에서 유골함 침수 보도가 있었어요. 저도 보도를 보고 챙겨 봤는데 명색이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되는 사람이 그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정당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훈부 예산이?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한 6조 4700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보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보훈 대상자가……

○柳榮夏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252만 명 그렇게……

○柳榮夏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252만이 대상자로 나와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제가 후보자가 지금까지 도의원,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보훈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91년도에 처음 도의원 출마하셨지요. 그때부터 16·17대까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홍보물을 확인해 보니까 보훈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게 2003년도에 후보가 대표발의한 게 있습니다, 1건. 그것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柳榮夏 위원 만약에 그 법안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으면 그다음 17대 때 다시 발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발의하고 폐기되니까 잊어버렸지요? 그런 분이 무슨 보훈부장관을 한다고 나십니까, 나서기를!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훈 전문가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 거기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국회사무총장 재임 시 국회에서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기획하고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래서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게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분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있었다’, 이거랑 지금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전문성이 있느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전에 저희 선조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비는 곁불을 찌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리가 아무리 탐나도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면 겸양하는 그런 미덕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과 도덕성 그런 준법성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과연 그 자리가 후보가 합당한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깊이 성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또 이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관련 법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柳榮夏 위원 정부조직법에……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듣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부조직법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는 어떻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

○柳榮夏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장관이 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청문회에 나오시기 전에 원래 보훈부가 갖고 있는 슬로건이 뭔지, 정책과제가 뭔지, 그 두 줄입니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나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훈부장관이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지는 이것을 보지 않고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된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장관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점심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유능한 해군 잠수함 함장이 있더라도 그 함장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임하면 그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보자가 계속 국회에서 활동했던 건 농해수산위입니다. 차라리 농림부장관으로 가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전문성에 질타를 안 받았을 것입니다. 전혀 보훈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아까 체화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요? 장관 자리는 수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체화된 전문가가 있어요. 장관이 보좌받아서 하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말씀 정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부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중에 국민통합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보훈부장관후보가 국민통합을……

본인이 통합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상징은 아니지만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강민국 위원 아니,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다시 민주당 뭐 이게 통합의 상징이에요? 자꾸 통합, 통합 하는데 그런 말씀을 좀 안 하면 좋겠고요.

다음 또 질의가 있는데,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은데 배우자께서 삼계탕 장사를 하셔서 저는 아드님 두 분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키웠다……

그런데 왜 그 자료에, 자료 거부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드님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거부를 하셨더라고. 다른 장관들은……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초본은 바로 내 드리라고……

○강민국 위원 아니, 다른 장관후보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다 동의를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권경목, 이 자녀가 큰아들이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민국 위원 지금 미국 엘 세리토에 사시는 것 같은데 또 작은아드님은 대만에 계시고,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민국 위원 그러면 자랑을 할 만한데 왜 그걸 거부를 하시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큰아드님은 지금 미국 시민권자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닙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뭐로 지금 있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포닥으로 갔다가 미국인 회사에 취직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nEye Systems를 같이 창업하신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교수님하고 같이……

○강민국 위원 지금 이사로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사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 주택은 무슨 돈으로 다 사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세가 한 100만 달러 넘던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알기로는 30년 모기지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도 없고?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영주권은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권자로 있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민국 위원 그런 것, 아니 요새 자녀분이 시민권이 있다 해서 또 영주권이 있다 그래서 그거 뭐 숨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왜 그것 동의를 거부하는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
시 박정희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물어보셨나요? 이재명 다음에는 대통령이 누구신가 한번
물어보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실제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참배할 때는 평
장히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모양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 적절치 않은 발언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 시중에서 뭐라고 하나 하면 권길동이라고 합니다, 권
길동. 홍길동을 같이 겹쳐서 홍길동의 변신술과 분신술을 함께 가진 분이 아니냐라는 이
이야기지요.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해 보면 2023년도에 다섯 곳,
2024년 네 곳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연평균 한 칠팔천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걸로 확인됩니다. 맞지요?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본인이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것 뭐 하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의 그 근무 형태가 전부 다……

○강민국 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비상근 형태기 때문에 실제로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
지 않습니까.

○강민국 위원 그런데 여기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보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한 달에 한 업체에 한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상담을 하
거나 같이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국 돌아가는 이야기나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

○강민국 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2023년 3월~2025년 6월 이 한 대학교에서 70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요, 신한대학교에서. 신한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강의를 하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강의를 요청했을 때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전문강사
의 수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외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것하고 교양학부 커리큘럼이라든
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단 한 번의 강의도 한 적이 없는데 두 곳의 대학에서 2억 가까운 돈을
받아 가면서, 정말로 바늘구멍 뚫기도 어려운 교수 임용을 위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젊
은 강사들도 많고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래서 학교에서 저한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민국 위원 돈은 그렇게 많이 받으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실제로 신한대학 같은 케이스는 경기북부가 분리된다고 했을 때 신한대학의 역할, 위치, 위상 여기에 대해서 참 자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민국 위원 추가질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 주질의 시간에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겠다 말씀하셨지요? 독립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준현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제2차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지금 서훈 대상이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2차 동학농민운동이 독립운동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그 서면질의도 보고 다른 걸 봤을 때 여러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질문해 봤을 때 ‘1차 봉기, 2차 봉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전문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받았고요.

제가 현직에 재직할 때는 동학농민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법안은 그때 윤철상 의원이 대표발의했을 겁니다. 그때는 같이 동참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표 보시는 거와 같이 1895년 을미의병 때부터만 서훈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제2차 동학농민운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일투쟁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점으로 해서 판단할 게 아니고 누가 얼마큼의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장관 되시면 좀 꼼꼼하게 살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두 번째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독립유공자법에 보면 1945년 8월 14일 기준으로 딱 잘라서 그 이전에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서 손자녀의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급권 인정 여부가 갈려요. 알고 계시요, 혹시?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45년을 기준으로 갈리는 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단지 제 의견은, 제 생각은 손자까지 다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유신정권 시절에 개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됐거든요. 그러다가 유신정권 시절에 이게 개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945년 8월 14일 그 기준으로 딱 잘라서 그 이전 이후로 이게 갈리는 거예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손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규정이,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2차 동학농민운동 관련해서 좀 숙고해 주시고 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수급권 인정받는 것 관련해서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주질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보안법 폐지 지금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국가보안……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찬성의 입장이었는데 그 대체 입법을 만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국가보안법 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최근에, 지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첩죄를 확대하자,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외국까지 적용하자.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어마어마하게 군사시설 촬영하고 있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우리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국적 불문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그런데 간첩죄를 확대하자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 주장인데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간첩죄를 적국인 북한 외에도 다른 외국에도 확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딱 정확한 원칙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특히 산업스파이 분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간첩죄 확대에 대해서 좀 앞장서 주세요, 같은 생각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간첩죄라고 딱 적시하기보다는……

○위원장 윤한홍 지금 간첩죄가……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하여튼 우리 국가이익에 반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내가 그 이야기예요. 간첩죄가 지금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간첩 하니까, 딱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면 서면답변할 때 ‘보훈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훈부의 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8개가 국가보안법 위반한 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그러면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자들이 전부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미처 서면답변을 자기가 못 챙겼다, 후보자가 확인을 못 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오늘 주질의 때 계속해서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중립적인 보훈 업무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그 부분입니다. 정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보훈의 이념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말하면 실제로 그게 언제부터 심하게 됐냐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보훈이 완전히 정치화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손혜원 전 국회의원 부친 그분이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계속해서 국가유공자가 안 된 것을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을 바꿔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선정을 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너무나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이고, 심지어 월북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보훈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하려고 시도까지 했었다고요. 그것도 아마 뉴스 봐서 알 겁니다. 그다음에 천안함 피격을 북한 소행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을 해서 재조사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하다가 또 여론에 막혀서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훈이 정치화로 가는 것은, 정치 논쟁에 휩쓸리거나 이념에 휩쓸리면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권오을 후보자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민주유공자법이라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려고 했지요. 이미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를 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 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국가인사라든지 남민전 사건이라든지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하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의견이었고 민주당은 전체를 다 하자 이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거지 처음부터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임명이 되면 장관님이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잘 다듬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립니다만 이념이나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보훈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증인신문하고 보충질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4명이었는데 1명은 오전에 철회를 하였고 한 분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현황에 대해서는 노트북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자료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시면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철 주식회사 구산물류 대표입니다.

다음은 김광민 주식회사 유니언에프앤브이 대표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신상철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증인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상철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증인 신상철

증인 김광민

○위원장 윤한홍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도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먼저 신청하신 이양수 위원님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저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柳榮夏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증인신문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이 같이 갑니다.

○柳榮夏 위원 먼저 신상철 증인 증언대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멈춰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유영하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아마 지인 추천으로 후보자를 고문으로 위촉하셨던데 그 지인이 누구 십니까?

○증인 신상철 지인은 없고요. 그냥 저하고 고향 친구라서……

○柳榮夏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후보자 말고 다른 분을 또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었나요?

○증인 신상철 예, 저희들 특성상 한 서너 분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 회사가 아니고, 저희 다른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포팅(porting) 회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잠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민 대표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답변서에 ‘지인 추천으로 고문으로 위촉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추천했던 지인이 누구지요?

○증인 김광민 영남 지역에 사는 알고 지내는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보면 고문계약서가 없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민 예.

○柳榮夏 위원 구두로 계약하셨습니까?

○증인 김광민 예.

○柳榮夏 위원 구두로 계약했고, 고문료는 어떻게 지급하셨지요? 계좌로 이체했습니까?

○증인 김광민 예.

○柳榮夏 위원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이사가 한 분 계시지요?

○증인 김광민 예.

○柳榮夏 위원 연 매출이 얼마입니까?

○증인 김광민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柳榮夏 위원 1억 7000?

○증인 김광민 예.

○柳榮夏 위원 혹시 증인께서 기부금 같은 것을 평소에 하십니까?

○증인 김광민 안 합니다.

○柳榮夏 위원 기부금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후보한테 월 300만 원을 고문료로 지불하셨지요?

○증인 김광민 예.

○柳榮夏 위원 그리고 특별한 고문 활동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광민 예, 활동은 있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후보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적 대화’ PPT 먼저 좀 띄워 주세요.

오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 후보자가 지난 5월 13일 날 구미역 광장에서 유세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세 내용을 보면 후보자께서 그 전날인 12일 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거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화면 다음으로 돌려 주시지요.

5월 13일은 화요일이고 5월 12일은 월요일입니다. 보시면요 박정희 대통령 생가는 월요일 날 정기휴관일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柳榮夏 위원 어떻게 참배를 하셨지요, 휴관일인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다음 날 유세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구미를 오시는데 혹여나……

○柳榮夏 위원 그래서 언제 참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문이 잠겼는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날 저녁에 당직하는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혹시 내일 후보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柳榮夏 위원 그래서 참배를 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먼저 좀 보고 와서……

○柳榮夏 위원 그 참배했던 사진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사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아까 대화 내용 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

영수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柳榮夏 위원 그런 응답을 직접 본인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유세하다가 본인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간절한 마음에 제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중에……

혹시 후보님, 신내림 받은 적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영적 대화가 가능하지 신내림 받은 사실이 없지요.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없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다면 이런 주술적인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한테는 제가……

○柳榮夏 위원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영적 대화를 해서……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분이 어떻게 보훈부 수장으로 보훈부를 운영하겠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문학적인 표현 같은데요.

○柳榮夏 위원 좀 가만히 계세요, 질의하는데.

선거법 위반 무마 청탁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시면 후보자가 자서전 ‘꺼병이의 꿈’에 쓴 내용입니다. “안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그분이 내 고등학교 1년 선배다. 딱 하나만 봐 주소. 가가호호 방문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 모른 척할게’” 이런 내용을 써 봤어요.

그동안 공직선거에 많이 출마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공직선거법상 가가호호는 금지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당시 91년도 지방의회 선거법에도 금지돼 있었습니다. 뭘 불법한 걸 자랑이라고 이렇게 자서전을 씁니까? 더군다나 ‘대문이 없는 집을 골라 다녔다’, 이건 불법 행위로 인식하고 만약 발각될 때 피하는 방법까지 기술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장관후보자,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게 전문성이고 두 번째가 준법성입니다. 후보자께서 선거 보전비도 다 반납 안 하셨지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못 합니다. 국가에서 반납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후보자 지명받으니까 5000만 원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뭘니까? 이게 지금 후보자의 준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좀 멈춰 주시고요.

화면을 저걸로 좀 띄워 주세요. 고봉삼계탕 화면 띄우면서 PPT 6번을 좀 띄워 주세요.

원건설과 삼우건설 알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이 회사 구체적으로는 모르고요 회사 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원래 실제 사주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柳榮夏 위원 이게 실제 사주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둘 다 페이퍼컴퍼니예요.

울광건설 대표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거기의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여기에 지금 배우자께서 근무하시면서 월 300만 원 받으셨거든요.

제가 이것 생계형이라 질문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후보자께서…… 배우자께서 제가 보니까 건설업과 전혀 관계없는 직종에 계셨어요. 교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아까 배우자께서 여기 내려가서 자문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다음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정식 출근의 경력은 교사 경력 했지요. 만약에 본인이 근무했으면 여기 건설사 경력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또 띄워 보세요.

종택도 이게 안동에 오랜만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안동에서 근무를 했으면 저런 얘기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했지 실제 수령자는 후보자로 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렇지 않습니다.

○柳榮夏 위원 다만 금액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고 많은 걸 떠나서 아는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고문 계약할 수 있고 비상근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걸 타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있었으면 그 소득에서 선거 보전비를 보전했어야 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준법의식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더군다나 보훈부 가족을 책임지는 보훈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자기 거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준법정신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김광민 증인, 저기로 좀 오실래요?

권오을 후보가 1년간 주식회사 유니언에프앤브이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광민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근로계약서나 고문 계약서조차 작성한 사실

이 없지요?

○증인 김광민 예,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참 좋은 회사다. 그렇지요? 문서도 없이 고문 계약 체결하고 월 3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지급한 것 맞지요?

○증인 김광민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 유니언에프앤브이는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증인 김광민 산업용 건축자재……

○강민국 위원 그걸 주로 어디에 납품해요? 제일 주 납품하는 데 어디예요?

○증인 김광민 건설회사 쪽입니다.

○강민국 위원 매출액이 1억 얼마에 불과하다고 하셨지요?

○증인 김광민 예, 올해 상반기 1억 7000입니다.

○강민국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1년에 1억 가까운 매출 하는 회사에서 고문 계약도 없고 문서도 없고 월 300만 원씩……

김광민 대표는 월급 있나요?

○증인 김광민 예,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얼마 받아요?

○증인 김광민 500 돼 있습니다. 500만 원 돼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거기 대표가 500만 원 받는데 그것도 비상근 고문이 달마다 300만 원 받는다고 이해 가시나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광민 저희……

○강민국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러면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자문했어요? 안 왔지요? 자문 안 했지요?

○증인 김광민 자문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뭐 했어요?

○증인 김광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희 회사 내부적인 문제라서……

○강민국 위원 지금 국회 와서 증인 선서까지 하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증인 김광민 아니요, 기억은 납니다. 나는데 회사 내적인 부분이어서 이게 외적으로 흘러 나가면 같은 거래처……

○강민국 위원 아니, 비상근 고문이 월급 300 받으면서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불과 일이 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김광민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후보자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유니언에프앤브이에서 재직 한 고문이 몇 명이에요?

○증인 김광민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다면 최근 5년간 권오을 후보자 단 1인만을 계약서도 없이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뜻인데 형식만 갖춘 이 급여 지급 명목 또는 고문료라는 이름으로, 이거 불법 후원금, 불법 스폰이잖아.

○증인 김광민 그게 아니고요.

○강민국 위원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 회사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증인 김광민 저희 회사가 22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한 6~7억 정도 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건설경기 악화로 23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하락을 하는 바람에……

○강민국 위원 아니, 매출액은 하락이 있을 수 있지요.

증인, 지금 증인입니다. 김광민 증인.

증인이 지금 여기 회사 대표지요?

○증인 김광민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대표가 500만 원 받는데 아무 하는 일 없는 고문이 300만 원 받는다?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좀 쉬고 계시니까 예우 차원에서 드린 거 아닙니까? 고문 내용은 사실 없잖아, 자문 내용은.

○증인 김광민 있고요. 예우 차원이 아니고 제가……

○강민국 위원 후보님, 그러면 저기다가 어떤 자문해 주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유니언에프앤브이하고 그 안에 관계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서너 개씩. 토디라는 회사도 있고.

제가 정부 시책 사업 중에 탄소중립 2030 관련해서 전국에 출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출장을 다녔습니다, 업체 만나고 또 관계자 만나고.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서 제가 중간에 ‘아, 내가 도저히 성과가 안 난다’……

○강민국 위원 이것을 사실 국민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심지어 김광민 증인은 내가 보니까 국정감사에도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후보님, 영호개발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압니다.

○강민국 위원 이 업체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지역 후배입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요청안에 제출도 안 했지요. 이거 후보가 고의로 누락한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강민국 위원 아니, 영호개발에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처음에 영호개발이 무슨 회사인지 몰랐는데 사람 이름 보고 알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거 국가보훈부장관후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후보자가 2022년, 2023년 영호개발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가지고 22년에 141만 2520원, 23년에는 143만 9640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겁니다, 이 회사에서. 급여도 받지 않았고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2년간 285만 2600만 원의 국민건강보험을 대납해 준 거예요.

후보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연 3400만 원, 2년 합계해서 68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 걸로 추정돼요, 역추정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 하고 근무한 적도 없고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회사 이름은 몰랐고요. 단지 거기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 보고 좀 자문을 해 달라고……

○강민국 위원 아니, 앞에 다섯 군데, 네 군데, 홍길동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또 자료에 신고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온 김광민 증인 여기도 대표가 500만 원 받는데 아무 하는 일 없는 고문이 300만 원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증인 김광민 제가 급여가 그냥 500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강민국 위원 뭘 자문해 왔어요, 뭘 자문을?

○증인 김광민 그 영호개발……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산업용 피팅·밸브 하는 데 아닙니까?

○증인 김광민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것 제가 모르고 물어보겠어요, 지금?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다시 여기는 자세히.

후보님, 영호개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영호개발.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 말입니까?

○강민국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영호개발, 후배가 농산물 도매시장을 하나 개설한다고 해서 안동시로부터 받은 인가 허가증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도매시장이 안동에 2개 있었는데 하나 더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자문을 해 주고 일을 해 왔습니다. 조건은……

○강민국 위원 소득이 없을 때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꿈수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왜냐하면 그때 건강……

○강민국 위원 내가 추가질의할게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건강보험이 다른 회사에서도 나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건강보험을 부탁해야 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사례로 여러 가지 제가 요구할 게 있다, 구두로 그러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일이 잘 추진 안 되고 지금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후보님?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후보자도 모르는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는 하지, 또 연합에이앤피, 또 유니언 에프앤브이……

추가질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자리에 다시 앉으세요.

증인신문 마지막 순서인데, 이양수 위원님 하셔야 되는데……

○이양수 위원 아니요, 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것은……

○위원장 윤한홍 증인신문을 안 하시겠다고?

○이양수 위원 예,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따 순서대로.

○위원장 윤한홍 질의를 순서대로 후보자한테?

○이양수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증인은 지금 안 하시면 보내 드려야 됩니다.

○이양수 위원 예, 보내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신청 안 하신 분 중에 증인신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기 때문에 신문은 종료하도록 하고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 물을 건 많은데 부끄러워서 못 묻겠어요, 부끄러워서.

○박범계 위원 미안해요, 증인님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양수 위원 뭐 맨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그런 이야기해요?

○강민국 위원 박범계 위원님, 대신 사과하신다고요? 위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박범계 위원 내 의견이에요, 강 간사님.

○위원장 윤한홍 그만하세요.

○이양수 위원 야당 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것 보시는 것도 여당 위원의 책무예요. 뭘 그렇게 못 참고 그래.

○박범계 위원 증인 불러 놓고 한마디 안 묻는 것이 그게 정당한 얘기야?

○이양수 위원 맨날 그랬지. 기업인들 불러 놓고 물은 적 있어요, 민주당에서? 잘하시다가 왜 또 이렇게 못 참고 저러시지.

○위원장 윤한홍 그만하세요.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증인들이 아마 안동이나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질의 총시간이 3분이 안 되어서 저도 증인들께—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 한다 자꾸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자료제출 안 했는지 통계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자료제출 요구한 것 전부 다 낸 게 41%고 일부 내신 게 52%라서 93%의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미제출한 것은 7%인데 그중에 또 오늘 오후에 내신 게 여기 있고, 직계비속 초·중고·대학교 학력까지, 학교까지 다 낸 후보자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료 잘 내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근로당권 설정 내역 등등까지, 그 사항까지 다 내셔서 충실하게 자료를 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이것 보셨을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낸 것으로 오해하실까 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 장관급이 29명이나 됩니다. 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장관급 후보자가 4명이나 되고요. 국회 무시는 윤석열 정부 때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후보자들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낸 것으로, 제3자 동의라든가 직계비속 동의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내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 보훈부장관의 자질에 관해서는 민족정기의원모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 민족정기의원모임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피탈재산 회복, 아마 예전에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뺏고 친일 부역자들한테 불하해 준 그것을 원상으로 되돌리자 혹은 강제적으로 뺏긴 그런 독립지사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 재산을 돌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별도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참고로 오래전의 이야기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받아 보고 읽어 보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한 국군의 날을 한국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 등등 제가 봐도 지금에 와서라도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로 보이고요, 우리 헌법전문에도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PT 자료 네 번째 것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독립유공자분들이라든가 또 호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게 지금 독립유공자라든가 호국 보훈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낡고 노후화됐는지 누수라든가 곰팡이가 슬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또 운동할 곳이 없어서 저기 보시면 복도에서 저렇게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는 80년이나 됐지만 독립유공자라든가 보훈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제 연세가 거의 칠십에 가까운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방금 영상을 보니까 정말 우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호국유공자, 어려운 분들이 참 많구나. 제 주위에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내가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을 때의 우리 보훈하고 이제 선진국이 되었을 때 보훈의 격도 수준도 다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일단 이런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제대로 찾고 발굴해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음번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희는 더 확대하고 싶은데 일단은 보훈의료 3법을 개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하로 낮추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에 의해서 보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만 구천 분에서 팔만 삼천 분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후보자님, 이 보훈의료 3법이요 이것 개정 추진할 의사가 지금 돼 있으면……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김승원 위원 보훈의료 3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는 받으셨고, 이것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고요. 방금 뒤에 내가 물어봤던 게 80세, 75세, 70세인데 뭐든 80세 기준은 너무 높다. 최소한 75세, 70세, 재정이……

○김승원 위원 지금이 75세고요 저희는 65세까지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재부의 반대가 있어서 70세로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70세의 증가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승원 위원 다음 PPT 보여 주실까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 지원 관련 보훈부에 대한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데 지금 보훈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중검토는 거의 안 하겠다는 거고 불수용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군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존 질병을 현저히 악화시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자 그것에 대해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약간 업무상 재해 혹은 공무상 재해,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어떤 산정기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를 위해서 병역이든 뭐든 하시는 분은 이런 보훈의 기준을 현격하게 낮춰서 폭넓게 보훈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일반 민간기업들 업무상 재해 인정하는 것이라든가 거의 똑같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가 정책에도 안 맞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군대에 갔던 친구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김승원 위원 많이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많이 봅니다. 봤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을 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는 단지 검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묻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김승원 위원님에 이어서, 군복무 중에 발생한 이명, 난청 그 고통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 보시는 영역이실 텐데요.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13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훈처에 공식 권고한 내용입니다.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에 대해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 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지킬 의무가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허영 위원 벌써 13년 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입증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지난 10년간 군복무 중에 이명, 난청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분이 4147명입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람들이, 598건에 불과합니다. 인정률이 14.4%, 10명 중 여덟아홉 명은 탈락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체 신청자의 65%가 아예 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 ‘대상 아님’ 판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80%, 90%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복무 기록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또 보훈 대상에 대한 판정은 보훈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부처 간에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군복무 이력, 장비 노출, 소음 환경 등 정보는 제대군인부가 국방부와 연동된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합니다. 또 장애 발생의 개연성이 50% 이상일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장애등급을 받습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요,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너무나 민주적이지요.

우리는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보훈부, 국방부가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하고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가 젊은 시절에 의무복무를 시켜 놓고 거기서 발생한 이명, 난청, 각종 부상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다 지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이명에 대한 보훈부의 등급 기준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대군인부는 이명 단독에 대해서도 청력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10% 고정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명 단독으로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아예, 호주 보훈부는 이명기능지수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구를

통해서 이명이 수면, 집중력 이런 정서 등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점수화해서 등급 반응을 해 줍니다.

이런 제도들 수십 년간 외국에서는 적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훈부는 이런 선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외국 선진 사례 제대로 체크를 해서 국내에서도 최소한 이명, 군에 가서 이명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치료를 하든 대우를 하든 한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저도 군인 시절에 충을 많이 쏘 가지고 약간 장애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명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계속 삐 소리 나는 것을 안에 안고 살아야 되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보훈병원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하고 서울 이렇게 6개 광역·특별자치시에만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서울로, 제주도는 부산으로 가서 보훈 치료를 받고 있지요. 그 대상자가 강원도는 2만 2000명, 제주도는 3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제주도는 위탁병원을, 또 많으니까 다른 지역도 위탁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병원과 보훈병원과의 여러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허영 위원 보훈병원은 전체 한 1200여 개의 항목에 대해서 비급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위탁병원은 3개 항목 정도만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급여 적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환자는 복장이 얼마큼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준보훈병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지정해서 보훈병원처럼 운영을 하고 좀 더 급여 항목을 늘리고 그리고 다양한 치료 환경을 현대화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진행되려면 국가유공자법 총 8개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은 첫째로 대통령께서 정말 의료 사각, 보훈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 준보훈병원을 각 국립대학교병원과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했을 때 예산 소요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영 위원 저도 법안소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예, 1분.

○이양수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권오을 후보자 직계비속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비속의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에 공문 시행하였으며 추후 회신이 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잠깐만, 초본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됐습니까?

○이양수 위원 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그냥 10분이면 땔 수 있는 걸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추후 회신이 오는 대로 제출’ 이게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대충 알고서 지금 요구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아까 바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질의 들어가시지요.

○이양수 위원 오늘 오전과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보고 또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는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낙제점 후보다라는 생각이 회의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후보자는 국가의 보훈을 담당하는 보훈부장관을 절대 맡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완전 비전문가고요. 도덕성과 준법성에서 현저히 자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쪽에서 열심히 꿀 빨다가 이재명 후보 지지한 덕분에, 즉 보은으로 보훈 장관 꿰찼구나, 보훈 장관이 아니라 보은 장관이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오전에 후보 사퇴를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진중한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여성부는 비테 장관, 교육부는 표절 장관, 보훈부는 보은 장관, 참으로 화려한 장관 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은으로 보훈 장관을 꿰찬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양수 위원 보훈 장관 하면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인사청문회가 없는 산하기관장이거나 어디 감사 같은 데 가실 생각은 없었던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부끄러울 일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도덕성과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논문 표절은 타인의 지적재산을 강탈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논문 표절로 팔 슈미트 형가리 대통령은 학위 취소와 함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한다. 즉시 사죄하고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이것 누가 얘기한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것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간에……

○이양수 위원 저 얘기를 누가 한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마 제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간에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대 후보한테 이런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쉽게도 권오을 후보께서 상대 후보에게 지적을 직접 저렇게 하신 겁니다. 본인이 논문 표절은 대통령직도 물러나야 될 행위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다, 후보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후보자께서 후보자 입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후보자의 논문 표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한번 봐 주십시오.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1996년에 한국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행 논문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쓴 연구 논문이에요. 그런데 권오을 후보자가 3년 뒤에 거의 그대로 씁니다. 다른 것은 ‘남한에서’를 ‘한국에서’ 뭐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보통 표절은 여섯 단어가 같으면 표절로 봅니다. 저건 뭐 수백 단어예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 내용의 출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 없이 그대로 ‘북한 이해’라고 하는 98년도 논문을 99년, 1년 뒤에 그대로 저렇게 베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92년 논문을, 그러니까 98년, 99년, 92년의 다른 국책기관이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저렇게 짜깁기를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1-4번 한번 봐 주십시오.

그대로 계속 베끼기가 죄송했는지 가를 3번으로 넣고 나, 다를 1, 2번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1-5번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정말 미안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84년 1월을 연과 월을 넣어서 이렇게 바꿉니다. ‘동 계획서’의 ‘동’ 자를 한문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지금 후보의 몇 가지 논문 표절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심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얘기하셨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후보자에서 사퇴하라’고 후보자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논문을 처음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용하는 데 일일이 다 이 인용 부기를 못 하고 빠뜨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난 다음 다시 논문을 한번 읽어 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용을 못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가 99년도다 보니까 그 당시의 석사학위 논문 쓰는 규정이 2006년도에 제정된 규정보다는 관례적으로 좀 많이 너그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후보자로서 여러 가지 변명하시고 싶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민들 앞에 좀 더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 후보자님, 보훈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빠짐없이 발굴해서 합당한 포상을 통해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래서 보훈부는 공적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2023년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훈격을 재평가하는 조직이 생긴 건데 억울한 사례 없이 공적에 걸맞은 훈격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위원회는 최초 독립유공자 포상 이후 추가 공적이 확인된 분이나 포상 심사 당시 공적이 누락된 상태에서 훈격이 부여된 부분에 대해 공적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재평가를 통해서 정당한 훈격을 부여하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가 서훈이 되거나 훈격이 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추가 공적을 확인했다거나 기존의 공적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독립운동 훈격 공감위원회 구성 당시 보훈부가 훈격 상향 주장이 제기된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로 김상옥 의사, 박상진 의사, 이상룡 선생, 이회영 선생, 최재형 선생, 나철 선생, 헐버트 박사 등을 언급했고요. 이 외에도 임시의정원 의장인 석오 이동녕 선생이나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등에 대한 공적 재평가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대수에 걸쳐 많은 의원님들이 서훈 변경을 골자로 서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모두 같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훈격을 결정하자는 건데요. 과거 포상된 분들은 당시 확인된 자료만으로 훈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추가 발굴됨에 따라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포상 시점에 따라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훈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국가보훈부가 너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저는 보

고 있는데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훈격의 그런 재평가 문제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거에 너무 낮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서 다시 평가할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은 개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개별 한 분에 대해서 평가하기 이전에 기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해서 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훈격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훈격을 정하는 것도 시기에 따라서 옛날에는 엄격했고요, 근래는 조금 덜 엄격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일괄적으로 기준부터 제대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훈격을 재조정해야 할 분 있으면 심사해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문 위원 제가 쪽 열거하신 분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분들이니까 이분들 위주로 한번 먼저 기준을 확립한 후에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호국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국립호국원에 대해서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정문 위원 국립호국원은 만장되어 가는 국립현충원을 대체하고 더 많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를 안장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돼서 2006년 1월 30일에 국립묘지로 승격됐고 2007년부터 국가보훈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정문 위원 전국에 호국원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지금 현충원이 6개, 호국원이 12개……

○이정문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여섯 곳에 조성이 되어 있고 호국원의 경우 현재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에 추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충원을 제외하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강원과 전남까지 호국원이 조성이 된다면 광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충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충남의 경우 현재 안장을 하는 경우에 피산호국원이나 임실로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 기준으로 하면 피산호국원의 경우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임실호국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충남에 있는 유공자분들이 고향을 놔두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아마 국가보훈부에서도 상당한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살펴보셔서 조속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그리고 아까 보훈병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준보훈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그동안 국가보훈부에서도 여러 계획을 세워서 국가보훈발전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속도를 좀 높여 주셔서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도 필요할 텐데 저희가 추산을 보고받으니까 이 부분이 대략 3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어쨌든 이 준보훈병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병원의 전문의 결원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현재 평균 전문의 결원율이 1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당한 전문과가 없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병원 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의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원뿐만 아니라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그런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께서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특히 보훈병원 관련된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보훈의료 대상자분들께서 소홀함이 없는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입장에서 만약 장관이 되시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윤한홍 위원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까. ‘보훈부장관의 자리라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는 자리다. 정치의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할 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처가 있고 그것은 여야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진보와 보수를 따질 문제가 아닌데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상처를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일들, 그런 발언들, 행태들이 있었다. 그 부분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김형식 독립기념관장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보수의 대표적인 상징적 학자 출신의 독립기념관장을 자처해서 우리 장관과 대립·갈등을 야기할 때, 그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과연 권오을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그 많은 전임 장관들이 그리고 기관장들이 소위 반역사적 인식에 독립기념관법을 침해하고 있고 위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위험한 발언들을 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정상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의 위배라는 야당의 성토가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기관장들이 여전히 과거의 그 반역사적인 인식을 벗어나지 않고 마치 보수의 전사처럼, 자리를 물러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군림할 때 우리 장관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언론을 통해서 그분들의 언행을 이렇게 봅니다. 저의 판단도 위원님 지적하고 똑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렇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고 또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부장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위치와 그런 역할이 있다면 하지만 조금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안 맞겠나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하여튼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박범계 위원 당장에 닥칠 굉장히 중요한……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박범계 위원 철학적 그리고 행동적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떨 때는 단호하게, 어떨 때는 유연하게 장관께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관과 철학을 잘 녹여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보훈부장관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주 실천적인 주제로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준보훈병원 제도라든지 보훈주치의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후보로서의 공약으로는 제가 여기 정무위에 오니까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실천적이고 굉장히 우리 보훈가족들에게는 중요한 공약이다.

이 공약들에 대해서 찬성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찬성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문제는 시범사업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보훈병원이든 보훈주치의제든 이것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일 겁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입법 사항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법률안 개정을 해야 될 사안이 무려 8개 법률에 이릅니다, 후보자님.

한번 제가 하나하나 읊어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고엽제법, 참전유공자법, 제대군인법. 장관이 되시면 이 법을 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밑에 맡겨 놓지 마시고 직접 봄으로써 구체적인 입법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손에 잡히는 주치의제, 준보훈병원, 차별 없는 지원, 이 점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아주 빠르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하신 말씀, 특히 시범지역을 정해서 한번 빨리 시행하

는 문제는 마치자마자 그리고 장관에 만약 취임을 한다면……

○박범계 위원 취임할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바로 한두 군데 시범해 가지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제가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법무부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우리나라 제복 공무원들이 군인, 경찰, 소방관 아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한 직역이 될까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교도관……

○박범계 위원 교도관입니다. 많은 숫자의 교정직 교도관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힘든 범인들, 재소자들에게 이빨로 물려 가지고 귀때기가 떨어져 나간 교정 당국의 공무원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교정의날 기념행사에 대통령께서 한번 와 주십사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안 오셨어요. 그 이전 대통령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교정의날에 한 번쯤 꼭 오셔서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법무부에서 할 일이지는 하지만,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국립호국원 얘기를 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법이 개정돼 가지고 다 안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교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박범계 위원 미처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후보자께서 오늘 아마 청문회 과정이니까 여러 불편한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고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여러 정당을 옮겨 다니면서 3선을 하셨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지금 이 자리의 후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부가 아니고 보은부다 이런 참 부끄러운 명칭을 얻고 있습니다.

쿨만 뻘다, 철새정치인이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훈부장관후보자한테 그때그때 본인 이해, 이익에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니냐, 믿기 어려운 것 아니냐,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동 출신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대선 때 대구·경북의 표를 얻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 영훈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영훈까지 끌어들이어서 지지 선언 유도를 하셨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추경호 위원** 영훈과 대화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추경호 위원** 아니, 간절한 것은 별론이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께서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추경호 위원** 언제 무속 신공을 습득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특정 후보에 관해서 장점을 이야기하고 지지 발언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정 수준 범위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아, 이것은 다른 욕심이 있구나’, 사람의 근본을 뛰어넘는 그 자질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영훈과 대화하고, 그 두 분을 끌어들여서 지지 선언하고 내가 그렇게 대화했다……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유신 시절에 다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부터는……

○**추경호 위원** 아니,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대화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내용으로 국민과 대화하면서 하시는 게 정상적이고 괜찮냐 이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보훈부장관후보자로서 진퇴를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반환하지 않은 선거 보전비용 반환 문제입니다.

청문회 하기 전에 2.7억 원(2억 7000만 원) 미반환했다가 이것 어떡할 거냐 지적을 하니깐 한 번 강하게 나오셨어요, ‘지금 반환하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재심 받아 본 뒤 납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다가 언론에서 질타가 있고 하니깐 아까 5000만 원 반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재심 의향을 지금 밝히셨어요. 그렇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보훈부장관 되시면 보훈부장관으로서 급여가 있을 텐데 이것 가지고 보전비용 반환할 생각이 1도 없으시겠네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단 재심 신청하면 거의 1년 이내에 나오는데 고민은 장관직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좀 고민입니다.

○**추경호 위원** 보통 장관이 아시다시피 평균 보면 1~2년입니다, 평균 수명. 물론 5년 내내 하실 수도 있어요, 6개월 만에 그만두실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1~2년에 다시 재심해서 나오면 그때가 보훈부장관 임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재심하다가 그때까 지 안 내고, 보훈부장관으로 급여는 수령하고 안 내면서 있다가 만약에 개각으로 인해서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때 돈이 없어서 나 못 낸다, 또 똑같은 행태 반복하실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마 계속 안 내는 것은 안 될 겁니다. 다른 경제생활

을 전혀 못 하게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미반환금, 수입 생기면 전액 반환하실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 입장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 재심을 하지 않으면 바로 반환을 해야 되고요. 재심을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추경호 위원 아니, 재심을 하시더라도 하려면 진작에 하시든지 보훈부장관 돼서 지금 이러는데 대법 확정판결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법 확정판결까지 불복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동안? 그리고 수입이 약 1억 원 안팎의 연봉이 있을 텐데 이것 가지고도 여전히 안 갚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보편적인 정서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음 PT 한번 보십시오.

다른 취업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석좌교수 등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외대, 신한대의 특임교수, 석좌교수를 하셨는데 강의 한 번 안 하고 월급받고, 정말 이것 신공을 발휘하는 노쇼 교수 아닙니까? 최소한 특강 몇 번 하고 강의도 몇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은 달고 강의 한 번 없고 연구 한 번 없이 급여를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1억 130만 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이 기간 중에 선거 출마를 해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이 급여를 받고 있다. 2018년 경북지사,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번 대선운동 기간 중에도 대선지원 활동 하셨을 텐데 75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러고도 학생들한테 제대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그래서 진퇴를 심각히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신한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경기도도로 분리되었을 때 학교 위상, 역할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자문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했습니다. 외국어대는 강의를 달라고 몇 번 총장한테 부탁을 했지만 당신이 강의를 하게 되면 다른 강사가 시간을 내어줘야 된다, 학교에서는 초빙교수 제도로 강의 없이 학교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나 대외에서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라 해서 그렇게 제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 권 장관후보자님, 오전에 후보자님의 역사관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지

요. 일제강점기 선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48년 8월 15일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는 잘못된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참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듯이 답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당연한 얘기가 아시겠지만 지난 두 명의 장관님으로 하여금은 참 듣기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장관님을 거치면서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주셨는데요. 김형석 씨라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전에 장관후보자님이 얘기하신 그 역사관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24년 8월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국적은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 신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다’라고 건국절을 옹호합니다.

참 문제지요. 이렇게 잘못된 역사관, 나아가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 반하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국가기관에 그중에서도 독립기념관의 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를, 요청을 좀 드려 가지고 김형석 관장의 임명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받으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받았습니다.

○김용만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어떻게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절차가 과연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공공기관장 임명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을 위해서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서 기관장을 추천하지요. 그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이 기관장 후보자를 준비하는 명단을 미리 만들어서 이사들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하는 것을 중용하면 잘못된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용만 위원 그런데 24년 5월 21일 이사회 당일에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목록이 자료로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종찬 현 광복회장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특수 관계가 있다거나 친족관계, 근무 경험 관계 등으로 하여 너무 가까우면 기피·회피 신청을 하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용만 위원 그런데 그 제척사유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제척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비슷한 이유가 있는데 제척당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용만 위원** 이종찬 회장은 김진 후보자 심사에 제척이 되었고 오영섭 위원장은 비슷한 관계에 있는 김형석 후보자 심사에서 제척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척이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최종 추천 명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류심사평가표·면접심사평가표에 점수가 덧씌워지고 수정된 정황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사진으로도 당시에 올렸었는데요. 임추위 위원이 최종 결과 납득할 수 없다고 이종찬 회장이 서명을 거부했는데도 추천이 강행됐어요. 이게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수표에 서명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방금 얘기한 세 가지의 잘못된 절차들이 한 기관에서 그것도 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독립기념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증감법에 의해서 그건 적법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자체적으로 법무 검토를 받았는데, 그 법무 검토에서도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국회를 무시한 독립기념관장의 자료제출 거부는 증감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가, 국가보훈부 감사 규정을 보시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1조에 ‘자체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복무감사로 구분한다’, 그중에서도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실시한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이 적법하게 기관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국회증감법상에서도 그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제출도 안 한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을 때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장관후보자님……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용만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으로 인선이 되신다면 저는 이 특정감사를 꼭 실시해서 해임 사유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 확인을 해 봤는데 정말 적법하게 기관장이 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대로 가되 단 확인은 해야 한다.

특정감사 실시하실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하여튼 보훈부장관 범위 내면 내용을 알아보고 시행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후보자님, 몇 가지 정리 좀 할게요.

선거 보전비 같은 경우는 1억 4000을 내셨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유죄 판결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시면 재심 끝나고 내고 재심 신청하지 않으시면……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바로 내야지요.

○민병덕 위원 바로 내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민병덕 위원 그리고 여기저기서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엄격한 근무를 했냐 그것인데, 자문이라는 것 자체가 비일상적인 것이어서 반드시 한자리에 그대로 정형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민병덕 위원 그리고 부인 가게에서 월급 받은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리고 부인 가게와 관련해서는 은평구 자택을 근거당권을 설정해 주신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것은 집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렇게 해 줬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러면 이 삼계탕 집에서는 실제로 서빙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민병덕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저기 당을 옮긴 것과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민주당으로 시작하셨고 한나라당 가셨다가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당을 옮기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민병덕 위원 그러시지요, 바른미래당으로?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가 윤석열 탄핵, 여기는 김건희 국정농단에다가 내란정당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지지할 수 없고 다시 민주로 이번 선거를 치르신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정체성과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참고로 제가 한나라당 하게 된 연유는 그때 민주당과 신한국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2기 때. 그때부터 한나라당 재선, 3선, 국회사무총장까지 참 열심히 했었고요. 새누리당 때부터는 실제로 저한테 한 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탈당을 해서, 그다음 5년 전에는 무소속으로 생활인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꼴을 빨았다’, ‘철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에 따른 것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 신념이지만 내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각으로 저한테 힐난하는 친구·선배·후배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 그냥 말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지냅니다.

○**민병덕 위원** 그리고 보훈부장관의 적격성과 관련해서 보훈 정체성 회복이라는 부분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추진 사항 다섯 가지 이 부분을 누구랑 상의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망가졌던 보훈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동의합니다.

○**민병덕 위원** 그럴 때에 있어서는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보훈부에 있었는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항상 얘기드리지만 보훈부 공무원들이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고 서비스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래서 표현이, 법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훈·보상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대상자라고 돼 있어요. 저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예를 들면 보훈·보상 권리자라든지……

이분이 권리자이지 무슨 대상자입니까. 법상에도 표현이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훈부 공무원들 고생하시겠지만 주인을, 보훈·보상받으실 분들 이분들이 주인이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자세도 바뀌어야 되지만 용어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훈단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16개 보훈단체가 있고 총 819명인데 그중에서 770명, 94%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이 시각이 보훈단체 직원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생활인으로 생각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이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을 최저임금까지 주면 얼마일까? 전체 15억 4000이면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훈부 됐는데 최저임금은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보고받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요 아까 김승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보훈은 합당하게 아니라 보훈은 흘러넘쳐야 됩니다. 과거에 했던, 그 보훈에 대해서 어떻게 딱 맞게 합니까? 우리가 보훈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고마움도 있지만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인데 딱 맞게 줘야 되겠습니까? 흘러넘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현행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이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뭐가 생계곤란자냐 봤더니 중위소득 50% 이하예요. 두 명이 사실 때 19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생계지원금인데 월 10만 원 줍니다. 엄청나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령을 좀 낮추자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셔도 배우자에게 주자 이것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안 할 텐데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민병덕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예, 1분 더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그다음에요 효창공원이라는 거 아시지요? 여기 효창공원에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렇게 삼의사가 계시고 김구 선생님 계시고 임정 요인들 유해가 안장되어 있고 심지어 안중근 의사의 가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역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입니다. 일반공원 내 합동 묘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한 관리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묘역이 깨지고 시설도 녹슬었는데 이게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효창공원 국립공원화를 추진했었는데 그때 효창운동장 대체부지 선정 문제로 빠그라졌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을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사업에 참여했지만 그때 예산 부족으로 또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복회에서 국립묘지로 승격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립운동의 성지인 효창공원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국립묘지 승격이라든지 국립공원화라든지 100년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서울시 용산구 주변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실무자로부터 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효창공원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여러 묘소도 둘러보고 참배도 하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까지 효창공원이 어떤 격이 주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보고 ‘이거 왜 이제까지 이렇게 되었을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안장되어 계신 분들이나 백범 선생의 여러 가지 행적이나 이런 것을 봐도 분명히 국가에서 격을 갖춰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병덕 위원 주변 주민분들하고 협조하면서 해 주시고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민병덕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기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지 않습니까? 빈 묘라는 얘기입니다. 권오을 보훈부장관으로 계실 때 안중근 유해를 꼭 찾아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그래도 저희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보니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앞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후보자가 보훈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서 이에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님이 의원 시절에 했던 그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을 보니까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16대 국회 같아요—2003년도에 보훈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1건 하셨고 또 공동발의도 8건을 발의한 이력이 있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현정 위원 또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에서 활동하시면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하신 적 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현정 위원 16대 국회 때 통계를 보니까요 그때는 4년 평균, 전체 발의 건수가 1651건으로 의원 1명당 법을 1년에 대표발의한 건이 2건 정도만 해도 많이 냈던 시절이었더라고요, 16대 때 보니까. 그런데 그 대표발의한 1건의 내용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후보자께서, 특히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경북 안동 출신이시고 또 보훈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대표발의했던 법률안 내용, 그때 그 내용하고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주위의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참 가난하게 지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삼대까지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해 주고 경제적 보상도 해 줘야 된다.

또 자손이 여러 사람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좀 더 형평성을 가지고 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분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시대에 맞도록 조금,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낮게 해 주고 나머지는 같게 해주더라도 모든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에 계셨던 분들은 독립유공에서 많이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면 보훈 대상에 당연히 포함해서 수훈을 하고 경제적 보상 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김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6대 의원 시절에도 이렇게 보훈과 관련된 관심이 있었고 활동을 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은 다른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훈 대상자 심사는 동일한 피해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상당히 달라지는 문제가 항상 지적돼 왔었거든요. 특히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소위 말하는 PTSD라는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는 입증의 어려움에 더해서 판단의 자의성으로 인해서 인정 여부가 엇갈리는 경우가 지금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 제가 2002년도에 발생했던 제2연평해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때 피격된 357호정의 예인이라든지 전사자 구조, 화재 진압 등을 위해서 358호정의 장병들이 실질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부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연평해전에 참전한 해군 장병들의 급성 전투 스트레스 반응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에 따르면 358호 장병들이 357호의 중상자 구조와 후송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외상을 겪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에서 지난 3월 달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 26명 중에 신청자 20명 전원이 유공자로 등록 완료됐더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해당 수치에는 358호정 장병들은 단 1명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20년이 지나서야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PTSD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도 어렵고 절차도 까다롭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점에 대해서 제가 후보의 생각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천안함 등의 현대전 참전 장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이런 PTSD로 고통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또는 치료 이력 부재로 인해서 유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현정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022년 국민권익위에서도 PTSD는 30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시도 하면서 즉시 진단이 없었다고 해서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간단한 서류 한두 장만 제출하면 국가가 조사관을 파견해서 그 입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조사도 시작되고 입증 과정도 어렵고 치료 기간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사비로 본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PTSD로 인정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PTSD 대상자를, 현대전이라든지 군인, 경찰, 소방 등 PTSD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미국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조사관을 파견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PTSD에 대해서는 20년 전, 10년 전, 지금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요즘은 굉장히 바로바로 인정을 해 주지만 20년 전에는 굉장히 인정을 안 해 줬고 실제로 그런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를 못 했던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청주의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지가 되면 같은 사건의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PTSD 증후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에 대해서도 만약 법안이 제출되거나 아니면 정부 입법으로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저도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2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그러십시오.

○**김현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법하겠다는 법안들은 나와 있는데 그 입법을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해야 되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권으로 해야 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특별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보훈부가 그 법을 준비할 그런 의향까지도 제가 함께 여쭙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겠습니다.

저희 보훈부에서 하든 아니면 위원께서 의원 입법으로 하시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그리고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 6월 달에 부산에서 6·25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인해서 마트에서 반찬거리 8만 원어치를 훔치다가 입건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났었는데요. 이게 이 한 건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PPT 보시면 지금 보훈 대상자 가구의 절반 이상, 55.2%가 저소득층이고 보훈 대상자 등 3만 2000여 명이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중 상당수가 점심을 무료 급식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아예 식사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자존심 때문에 무료 급식소 이용을 꺼려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노숙 위기 재향군인 대상으로 식사·주거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도 고령 보훈자에 대해서 배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훈회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구축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제공되는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우처 형태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점심 한 끼 급식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 내용은 복지부, 행안부, 지자체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경로당에서는 점심이 제공되는데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서는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은 이번에 저도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김현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6·25전쟁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평균연령이 92세거든요. 월남전 참전자도 평균연령이 77세 이렇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가 급속히 되면서 이제 단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
에까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현행법은 지금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공자들이 모두 사망할 경우에는 단체의
존속 자체가 어렵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유족 중 1인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
여해서 유족도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그 단체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참전
유공자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 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단체가 유지·
존속하면서 참전유공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오전 주질의 때 질의를 했던 그 내용대로 조금 연장해서 다시 한번 질
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후보께서 여러 사업체와 법인에서 사실상 스폰서성 급여를 수령하셨는데 보통 일반 공
직자들이 퇴임을 하면 한두 군데 정도는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민간기업의 고문직으로
고용계약을 해서 그런 급여를 수령하는 건 관례적이기도 하고 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데 후보께서는 여러 업체로, 좀 노골적인 어떤 그런 급여 수령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
가보훈부장관후보로서의 격에 맞는 처사인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배우자께서 대전의 길재소프트웨어 또 안동의 삼우건설, 원건설에 실제 근무를 하셨다
고 아까 하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상훈 위원 실제 근무를 하셨다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길재소프트는 마포에 있었고요. 자료제출될 겁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왜냐하면 대전 가기 전에 마포에 있었습니다. 마포
에 있고 그 당시에 코로나여서…… 여러 가지 앱 개발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만약에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것 짚을 거니까 근무 기록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보훈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보훈처는 중국 팔로군과 북한 인민군의 군가를 작곡하고 6·25 남

침에 가담한 정율성, 김일성 초대 내각의 국가검열상, 장관급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김원봉에 대해서 독립유공 서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어요. 특히 김원봉 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된다’라고 현충일 기념식에서 발언까지 하면서 서훈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과 6·25 남침에 기여한 바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추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세세(謝謝) 보훈’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종종 보훈, 중복 보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국민 혈세 48억을 들여 가지고 정율성 기념공원을 건립 추진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후보자에게 드렸는데 거기에 ‘정율성은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6·25전쟁 당시 적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하고 직접 남침에 참여한 인물로 대한민국에서 기릴 인물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없습니다.

○김상훈 위원 후보자께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봐 주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참전유공자 예우는 월 45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최저임금의 3분의 1 정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우리 정무위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여야가 공히 지금 현재 월 45만 원 지급받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은 이분들의 생계비 보전에도 부족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로 인상하는 그런 안을 편성해서 예결특위로 보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왔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을 부활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참전명예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당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참전해서 본인들의安危를 살피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에 너무나 우리가 냉담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 차제에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서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해마다 참전명예수당이 거의 5% 인상이 되면서 한 3만 원씩 계속 인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그 정도의 인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란가 국가의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예우가 현실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분들은 노령이시기 때문에 명예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돼 가고 있어요. 현재 취약계층 보훈 대상

자가 보니까 3만 2500명 정도 되는데 참전유공자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요. 생계비 보전에 턱없는 그런 수당을 지급받고 계시기 때문에 늘 생계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참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도 좀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보태는 그런 스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상훈 위원 현재 국가보훈 정책에서는 이념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여야가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유공·국가보훈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같이 좀 힘을 보태서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만큼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길재소프트하고 삼우건설 배우자 근무기록은 지금 보훈부 직원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소명할 거는 빨리 소명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팩스나 이메일 보내면 되잖아요, 그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사망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 회사도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대리 강민국 소명하실 건 빨리 소명하는 게 좋다. 자료제출할 거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지금 아마 바로 제출은 어려울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한번 알아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한번 저걸 봐 주시지요.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첫 번째 사진은 6·25전쟁 영웅 고 전병익 해군중사입니다. 1950년 4월 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에 배치돼서 전쟁 발발 직후 대한해협 해전에 3인치 포 장전수로 참전해서 해군 역사에 길이 남을 전공을 세운 분입니다. 오른쪽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입니다. 비전투 상황의 순직자입니다.

두 분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인의 책임을 다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인데요. 전쟁 중이었던 평시 재난 상황이었든 군복을 입고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숭고함은 다를 수 없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전몰군경이지요, 왼쪽에 아까 봤던 전병익 해군중사는요. 그리고 채수근 상병은

순직·공상군경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다릅니다. 전쟁 중 전투로 인한 전사고요 그다음에 채수근 상병은 비전투 상황에서의 사고입니다. 군 내부 명령체계나 안전 시스템 미비 그리고 누군가의 제대로 된 보여 주기 식 군사행정 등등이 원인일 겁니다, 사건의 원인.

유족들도 다르지요. 전몰군경은 유족 중심이고요 자녀 세대들입니다, 대체로. 그렇잖아요, 전몰군경유족회는. 그런데 순직·공상군경들은 부모 세대 중심입니다. 부모 세대가 중심이고 사고 직후에 현실적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아들 보냈더니 못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다르지요, 유족 구성도.

정책 요구도 다릅니다. 전몰군경은 예우와 추모 중심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기념과 기억이 정책적 요구의 핵심입니다. 순직·공상군경, 채 해병 부모님은 진상규명, 제도개선, 재발 방지, 군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으로 요구도 다릅니다.

비율은 전체 유공자 중 전몰 유족은 약 32%이고요. 순직·공상군경의 부모 세대, 부모님들은 대체로 17.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법단체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전몰군경유족회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 중심으로 공법단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상, 자식 잃은 부모님들 중심으로 돼 있는 이분들은 별도의 공법단체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관련 법안을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도 21대 때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요 이번에도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건의 원인, 유족 구성, 정책적 요구, 구성 비율은 상당히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공법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채 해병 어머니, 부모님은 실제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공법단체를 통해서 보훈부에 전달하거나 사회적으로 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직군경 유족들이 별도로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훈부장관이 되시면 잘 살펴 주시고 추진하는 법안에 관심을 좀 가져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후보께서 독립운동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훈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독립운동에 대해서 좌우, 진보·보수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양상으로 갔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것 보세요.

광주독립운동으로—PPT 다음으로 좀 넘겨 주셔야 됩니다—일제강점기에 옥고를 치른 인원은 한 5만 4000명 정도 됩니다. 퇴학 등 비형사적 처벌자를 포함해서 추정을 해 보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학생 독립운동, 이것 광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통계를 찾은 건데요. 그런데 건국 후에 서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는 약 5만 20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금 보훈부에서 서훈 심사를 하는 속도로 보면 5만 2000명이 전부 다 서훈을 받는 데 한 200년 걸릴 것으로 추산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현행법상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국훈장을 받을 때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해서 일제의 국

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만 수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훈장을 받지 않으면 독립유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 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운동에는 진보·보수, 좌우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원천적으로 서훈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서훈 심사에 올라가도 너무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예 독립훈장을 별도 서훈으로 만드는 것이 200년 이상 걸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독립운동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훈장을 별도 서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훈장 서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유족들도 공적조서를 작성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 공적조서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국가의 최초의 진실규명 책임이라 든지—이건 사실은 서훈법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 는데요—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독립훈장을 별도 서 훈으로 하는 것, 그래야 사실은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뒤에 보충 안 하고요.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신장식 위원 보세요. 2013년에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차별, 즉 장자에게만 주는 것이 헌법불합치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보훈보상자 부모 간 차별 헌법불합치 나왔어요. 그다 음에 전물군경 2021년에……

○위원장대리 강민국 2분 드리면 되나요?

○신장식 위원 예.

6·25 전물군경 자녀 간 차별 또 헌법불합치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국가유공자 자녀 간 차별, 장자에게 먼저 주는 이것도 헌법불합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말하자면 보훈부는 왜 개별 개별 개별법에 헌법불합치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오히려 통합적으 로…… 사실 제가 헌법불합치 판결 이렇게 쪽 보니까 나올 게 아직도 있어요. 통합적으 로 이런 평등권을 침해하는, 큰아들에게만 보훈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이것 을 보훈부가 법제처랑 협의를 해서 선제적이고 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이런 불합리를, 건건이 헌법불합치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훈부에서도 업무를 일부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 요 좀 빠르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후 보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부모 간 차별이라는 게 처갓집, 친갓집을 이야 기하는 겁니까?

○신장식 위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알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팔남매 중에 맏이가 아니어서 가끔은 그런 고민을, 요즘 세월에 이걸 왜 아직 차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훈을 별도로, 독립훈장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한 견해 그다음에 순직·공상군경들을 전몰유족회랑 별도의 공법단체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마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그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어서 지금 전혀 거기의 콘셉트랄까 이게 아직 잡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서훈이나 이게 쉽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장식 위원 예.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거 한번 안에서, 내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별도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여쭙았는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신장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신장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경기도 김포율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후보자가 장관님이 되시면 보훈부가 명실상부한 부로서 국민들에게 자리매김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뒤에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거기에 큰 역할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저는 저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다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훈의 내용들은 차고 넘쳐야 된다 그리고 거기의 수훈의 대상들은 좌우나 이념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이 확립되어야 국민들한테 보훈부의 위상이 제대로 각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공감합니다.

○박상혁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김현정 위원님이 연평해전 문제 그리고 오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연평해전 당시에 참전했던 우리 수병들, 참수리 325호정으로 참전했던 수병들에 대한 전·공상 등록 신청 문제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신청이 부결되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 PTSD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도 있었고 재심 신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제가 이것을 국감 때 하려 그러다가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진단서에 PTSD 발병 원인으로 제출했는데 보훈부에서는 원인으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좀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단지 제 생각은 같은 장소, 같은 전투에 있었던 수병들이 인정되고 인정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깊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참전 수병들이 PTSD 발병 원인으로 해서 진단서도 제출했었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훈부에서 다시 사실과 다른 답변을 저희들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심을 진행하는 와중에 왜 이런 답변들이 왔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사건에는 같은 대우가 합당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훈부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훈, 서훈과 관련돼서도 PT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1·2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 쪽 보면 물론 무공수훈자는, 이 문제는 이쪽 보훈부는 아닌데 대부분이 보면 장교나 부사관들은 무공수훈을 받는데 사병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고 제외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훈부가 상훈 업무가 보훈부의 권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상훈에 대해서도 우리 병사들이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참전명예수당 문제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간에 차이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보상과 예우를 합당하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역별로 조례가 많이 달라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하나 보니까 지자체별로 아마 자신들의 재정적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기는 한테 조례 근거가 아주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서 보면 조례에 연령 기준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한 열아홉 곳이나 됩니다. 어떤 조례에는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곳이 세 곳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별로 60~65세 이상인 곳

은 일곱 곳이고 어떤 곳은 80세 이상만 지급하도록 지자체별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근거 법을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나이별로, 기준별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각별하다는 거지요. 같은 경기도 안에 사는데도 어느 시에 사는 것과 저쪽 시에 사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려고 보훈부에서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결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국고를 보조하는 부분을 차등적으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의 갭을 메꿔야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나름의 대안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제정할 때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통일적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께서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내부 보고도 받았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하려면 상향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 형편, 보훈부의 예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상향 조정해서 큰 차이 없도록 계속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기재부하고 많이 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마 제가 장관이 되면 해야 할 역할이 기재부와 행안부하고의 관계에서 계속 실랑이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을 대독해서 유명하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후보자님,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을 대신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실까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이겁니다, ‘평일 날 골프 친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저 내용이 뭐냐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후보자께서 2011년 9월 23일, 그때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총장이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휴가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안동의 지역 안동시의원 2명하고 언론인 5명과 골프를 쳤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공직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총장인 후보자가 아닌 여기 계신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국정감사 중에 오전만 마치고 오후에 휴가 내서 골프를 쳐서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저는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당연히 징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쳤으면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서 행안부장

관에게 보낸 특별포상 대상자 추천서입니다. 보낸 사람이 후보자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공적조서’ 이렇게 돼 있고 ‘국회의장회의 특별포상 대상자 추천’ 그래서 후보자가 자신이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셀프 추천을 해 갖고, 공무원으로서 가장 등급이 높은 근정훈장 1등급이 청조근정훈장입니다. 이것 셀프로 추천해서 받았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회사무총장을 퇴임하고 난 이후에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신 분은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본인 스스로 추천해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분은 오직 후보자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냐? 그래서 이유를 좀 봤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이게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입니다. 2011년도에 청조근정훈장을 받았으니까 2012년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포스터에 저렇게 자랑스럽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징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분이 셀프 추천을 해서 그것도 1등급 훈장을 받은 분이 과연 보훈심사를 해서 보훈포상을 관할하는 보훈부장관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후보자는 과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청문회를 진행해야 될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떤 공적이 있냐 그래서 공적조서를 좀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국회사무처 답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의결서 및 공적조서 등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정보로 공개하기 어렵다’ 그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적조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본인이 신청해서 보내 준다면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땅 관련 보시지요. 후보자의 저서입니다. 이게 본인이 글을 썼기 때문에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꺼병이의 꿈’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지요?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때 경북도청 이전 계획 발표가 2008년 3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도청이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 지역 부동산이 들쭉들쭉할 때였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저 책에서,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불개입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서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의정보고회 때마다 절대 땅 팔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꿔 해석하면요 도청이 안동으로 올 거니까 도청 소재지가 옮겨 가는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팔지 마라, 그러면 땅값이 오른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실제 기사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지역의 땅값이 들쭉거렸다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청이 옮겨 가는 것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알 수도 있다고 봐요. 후보자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지역이 아닌 안동으로 유치한 공로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절대 땅 팔지 마라 이 말은 당신들 땅 안 팔고 있으면 도청 소재지 여기 와서 땅값 오른다 이런 얘기 거든요. 이게 부동산 투자를 조장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아마 배우자께서 있는 고봉삼계탕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총급여가 3340만 원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어떻게 됐냐면 3만 9130원만 납부를 하셨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소득세법에 보면 시행령 20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는 약 24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받아 보니까 2023~2024년도는 일용직이고 2025년도에는 상근직으로 근무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로 쓰고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정규직으로 정상근무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법인은 세금이 한 958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고요 후보자는 약 809만 원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아까 국가보훈부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6조 4000억.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6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어쨌면 이런 국가 예산을 다루는 수장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본인 세금부터 이렇게 제대로 안 냈거든요. 후보자의 준법 의식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일관성 있는 겁니다. 선거 보전금도 안 내고 끝까지 버텼고 본인 세금 문제도 빠지고 그다음에 선거운동도 불법을 그냥 자행했고, 이런 준법 의식 없는 분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게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로 참 저도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운데,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기가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柳榮夏 위원 독립기념관장 임기가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맞습니다, 3년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임기 전에 그 직을 그만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 둘째 독립기념관법 제10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견됐을 경우에 직을 잃게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념관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어떤 사람의 이념이나 사

상은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근무 중에 골프 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비록 휴가를 냈다 그러지만 그때도 사과를 드렸고 지금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셀프 훈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추진되는 것을 몰랐는데 중간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G20국회의장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걸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다고 해서 국회사무처에서 4명이 훈포장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 재임 중에 훈장을 준다 그래서, 제 전임자는 훈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좀 문제 있는 게 아니냐 했을 때 사무처에서 ‘G20국회의장회의 공과로 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일찍이 재임 중에 이렇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추진했던 직원들한테 이번에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당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적조서는 국회사무처에서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청 옆의 땅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도의원 때부터 도청 유치 문제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의정보고회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이 ‘도청이 옳니까, 안 옳니까?’ 이렇게 계속 묻습니다. ‘온다 안 온다 말은 못 해도 땅은 팔지 마이소’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혹여나 정말 도청이 옳지 안 옳지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땅 팔았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지역 주민들이 참 박탈감을 느끼겠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대신에 주위의 어떤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제 동생까지도 ‘귀뎀이라도 해 주지’ 했을 때 ‘묻지 않는데 내가 왜 대답을 하나, 물었더라도 내가 대답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도청 오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의정보고회 때 그 말 참 고마웠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다음에 정규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정규직·비정규직 관계로 세금을 덜 냈다 한다면 국세청에 확인해 보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거기 근무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고봉에서 처리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처리했다면 아마 일정 부분은 정규직으로 댔을 거고 그 뒤에는 일용직이나—저는 주급을 받았습니다—주급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에 확인해 보고 더 추정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질의 다 하셨나요?

땅을 팔지 말라 하고 땅을 또 사라……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사라는 말은……

○위원장대리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그 차이를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후보자님 말씀은 잘 알겠고.

김재섭 위원님 성대 수술한다고, 인청 준비하시는 데 너무 수고하셨고 또 오늘 대독한다고 유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수 위원**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독립유공자 공적 기준이 전에는 최소 독립운동 기간이 6개월이고 또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경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옥고 관련 기준은 폐지를 하고요. 또 공적 확인을 할 때는 독립운동단체의 명부나 기관지, 판결문, 행형자료, 신문 보도 기사, 정보기관의 보고서, 사진, 수기 등 여러 활동 당시의 사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훈부가 간접 지원 활동도 독립운동자 포상심사 기준에 추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포상 기준 개선 노력을 해 온 건 사실이고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회가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소장자료에서 확인된 독립운동가가 약 24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순국 또는 투옥된 독립운동가는 27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6.75%에 불과합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유동수 위원** 순국하고 부상, 투옥된 사람들 전체 인원 중에 포상자는 6.75%에 불과하고요. 또 보훈부가 부로 승격된 2023년도 독립유공자 포상 건수가 271건, 24년은 257건. 그 전년도에, 보훈부로 승격되기 전에 보면 거의 50%로 줄어요, 오히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분별하게 포상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공적조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원인을 보면 엄격한 문서 증거주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대학교가 네 차례에 걸쳐서 최태환 지사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이분은 6·10만세운동 시절에 정읍에서 백기 게양을 주도해서 정읍경찰서에서 유치장에 40일간 구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포상이 거부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뭐 해 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보훈부가 포상 범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포상심사 기준 전반을 재정비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문서주의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나 사진이나 다른 행적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인천대학교 자료를 필요하다면 제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재활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쭙볼게요.

이 방문재활서비스는 국비 진료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인지치료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300명 이상이 신청하고 매년 평균 30명 이상은 대기를 해야 되고, 5년간 방문재활서비스 이용 건수를 보니까 1만 8900건 정도 되고 작년도에 1만 5000건 이상이 돼서 여전히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는 올해부터 치료사 인력을 13명으로 줄여 버리고 예산도 크게 줄였습니다, 9억 800으로. 이 원인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훈병원 재활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하라 이렇게 해서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재활센터와 방문재활서비스 기능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방문 재활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한정돼 있고요.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하고 상담해서 방문재활 여부를 결정하는 환자에 한해서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족도 조사에서도 5년 내내 98점 이상을 받은 서비스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줄여 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이것 축소하면 안 된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리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축소하고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당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 필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제도를 좀 더 들여다보시고 이게 예산이 깎이지 않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니까 꼭 다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민국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장시간 하니까 아주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치에 선출직으로 나가신 게 도의원을 하셨네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강일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3선 하시고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사무총장도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상당히 정치 선배가 되시는데 아마 도의원이면 저도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을 하신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강일 위원 저도 무보수 명예직을 했는데 이 정도의 국회 경력과 국정과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셨다면 제가 조금 자괴감이 드는 게 저의 미래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투영이 돼서 잠시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한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장년을 보내고 계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안에서 듣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갑질’이라는 단어와 ‘동냥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문제가 될 수 없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약간 부적절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별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하나의 개그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맥에 좀 문제가 있어요. 같은 것을 질의할 때 갑질이라는 것과 동냥질이라는 것은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갑질이라는 것은 위계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상태인 거고 동냥질은 입장이 좀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한다고 그래도 하나만 통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단어가 같은 질문 내에서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후보자가 좀 안쓰러운 부분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보니까 선거법과 관련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다툼이 좀 남아 있지만 재산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삶이 굉장히 곤궁하고 힘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지금 같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투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식견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님께 보훈과 관련되는 식견을 물어봤을 때 상당히 합격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 보훈부 업무에 대한 식견은 경험이 좀 부족하셔서 부족하다 이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채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이전 정부 보훈부의 업무를 봤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을 인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보훈부의 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더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민족혼에 대한 정체성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식견이 부족한 건 분명히 아니었다, 그리고 업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좋은 식견을 가지고 충분히 채겨 나가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전 질의한 부분 계속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부가 관리하던 친일 귀속재산 일부를 친일 후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시대 때 우리의 독립운동 사항에 대한 보훈 부분 그다음에 친일에 대한 부분을 단죄하는 그런, 주무부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공교롭고 유감의 뜻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친일재산을 다 환수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이 상존해서 남아 있는 그 친일재산들을 찾아서 환수하는 노력 자체가 민족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강일 위원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물론 저희 당 위원들이 주가 됐었지만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빠지고 객들이 이렇게 행사를 준비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준비 사항 충분히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광복과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고 참여해서 뜻깊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고향이 진천입니다. 진천에도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설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 고향 얘기를 해서,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상설 선생님의 서훈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단계 승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승급운동이 지금 진천에서, 저희 고향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개인적으로 청하고 싶습니다. 한번 다 따져 봐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지역의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월남전 참전 전우분의 미망인이세요. 그런데 남편 병 수발하느라고 젊은 시절 다 보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원금이 딱 끊겼다는 겁니다. 생계가 너무 막막하고—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화가 너무 많이 났다는 겁니다. 돌아가셨으면 외려 위로를 더 해 줘야 되는 데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지원금이 딱 끊기니까 정말 푼돈이지만 생활하기도 더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훈에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하실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강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병원이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충남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위탁병원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은 다 하셨지만 보장되는 범위가 너무 적다 그래서 혜택이 좀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칩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민국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조금 전에 이강일 위원님이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솔직한 마음은 좀 부끄러웠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도 월 150, 고문으로 자문을 하고 했지만 그 액수 자체가 혼자…… 차라리 한두 군데 돈 많이 받고 고문을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궁색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건 돈에는 공짜가 없다, 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을 해 줘야 되고 적게 받으면 자문도 조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여러 군데에 겹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부끄럽습니다. 실제로 좀 부끄럽고요.

그다음에 저의 어떤 법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요즘 혼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법의식이 철저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그런 전철을 좀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신상 문제를 말씀드려서.

○위원장대리 강민국 그러면 원활한 인사청문회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

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십시오.

○한창민 위원 예.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 보훈 정책, 대통령님께서 매우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도 예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국민배제 보훈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늙고 병든 우리 참전용사들과 배우자들에게 마땅한 예우가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독재정권이 죽인 자식들의 뜻을 이어 일생을 민주주의에 헌신해 온 유가족 어머니들에게도 경의를 함께 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통합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한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참전유공자 예우 또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틀의 의견을 넘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전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살아 계신 분이 지금 10만 명이 좀 넘습니다. 현재 이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45만 원과 생계지원금 10만 원, 합해서 5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평균 나이가 82세입니다. 6·25전 노병의 평균 나이는 93세에 달합니다. 이분들을 만나면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 홀로 남은 아내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배우자 실태조사한 걸 바탕으로 자료를 보시지요. 유공자 생존 시 월 소득은 124만 원 수준인데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월 소득이 82만 원으로 확 줄입니다. 기초생활도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처럼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영예로운 노후는커녕 가난과 궁핍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고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승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늙고

병든 우리 참전용사들과 배우자들이 품위를 잃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한창민 위원 민주유공자 관련해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박창수, 김귀정, 이분들의 이름은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등이 이분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내란의 밤을 6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때문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 제복 입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 낸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도운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동자, 시민, 학생, 총 932명의 민주주의 투사들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5년 동안 농성하고 오체투지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해 온 사실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끌어 내고 민주화유공자법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실종, 사망, 부상당했던 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좀 더 폭넓게 민주화유공자로 확대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 저마다의 신념과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쓴 것 이것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한창민 위원 다른 정책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만큼 보훈 서비스의 핵심은 단연 의료입니다. 지금까지 유공자들과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한창민 위원 그런데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보훈병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딱 여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 경기, 강원에 거주하는 당사자들만 해도 70만 명이 넘는데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훈부는 제주와 강원도 준보훈병원을 설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63만 명한테는 아무런 대책도 되지 않습니다. 이 대책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위탁병원은 매우 극소수로 지정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다시피 현재 905개의 위탁병원이 있지만 이 중에서 639개만이 의원급이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급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찾아다니라는 게 지금 우리의 보훈 정책입니다. 연말까지 123개를 추가한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탁병원에 가실 경우에는 지원 대상도 제한되고 비급여나 약제비 부분에서도 일부만 지원이 되는 엉뚱한 현실이 이중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관련해서 위탁 연구를 해서 위탁병원을 전 병원·의원급으로 지정하는 것 이게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있는데 왜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시고 이것이 진짜 보훈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고령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힘겨움 이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이번 보훈 정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살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을 돌파하는 대안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특히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쓰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예,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정말로 배우자들 혼자 남았을 때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참전명예수당도 다른 국가유공자보다 턱없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리는 것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 후보님께서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근무 당시에 노동조합 부위원장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는 2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입니다. 알다시피 각 부처에 공무직이 있는데 매우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3분 보충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1분 더 드리세요.

○한창민 위원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힘 있는 부처는 가족수당이 나오고 힘없는 부처는 공무직의 가족수당이 안 나옵니다. 이런 처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한창민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기재부, 외교부, 산자부 등 힘 있는 부처의 공무직 근로자는 가족수당을 받는데요 지금 보훈부 등 힘없는 부처,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처의 공무직은 최소한 가족수당마저도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가족수당과 같은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받고자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지만 번번이 이게 무산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기재부의 목줄을 틀어서라도 이러한 차별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오후에 질의했던 연장선에서 마저 후보자의 가치나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결국 독립과 호국과 민주 이 세 가지가 보훈의 3대 요소, 3대 정신, 3대 영역처럼 되어 있는데 일종의 삼위일체 보훈의 길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한 두 분 정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호국만이 보훈의 길이고 독립이나 민주의 영역들이 이렇게 소홀히 평가되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그동안 있었던 국가보훈부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예컨대 호국에 치중된 이런 보훈의 영역들, 비중들이 너무 크다면 독립과 민주의 영역들 또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좀 발굴하고 높여내고 이런 과정이 저는 꼭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부터 우선 좀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나 사업의 영역이 특정한 영역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립이나 민주의 영역들을 키워 나가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러지 않고서는 민주유공자와 관련한 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오래 있고, 호국의 영역들을 갖다 쓰면 아마 그 법안이 빨리 채택되었을 텐데 이렇게 오래도록 끌여질 이유도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훈에 있어서 독립 자존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친일, 매국, 식민사관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거나 혹은 그것이 미화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립과 달리 친일의 문제라든가 특히 친일 속에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독립이 아니라 자치만 해도 된다는 이런 사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넘어서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독립이나 민주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키워서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존립과 주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희생했던 분들의 역사적·정신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훈의 중요한 좌표로 세워 나가는,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위원님들의 검증 과정에서 또 질의 과정에서 아주 분명한 소신을 보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후보자께서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훈의 정신이 호국만으로 있으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외발로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민주화 또 독립, 특히 독립의 역사적 정신, 민족적 정기 이런 것들과 함께 있을 때……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 술이 3개의 발로 서야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보훈의 국가적인 정신 또 국가보훈부의 정신적 기축 이런 것들이 확립되고 그것에 충일한 국가보훈부 구성원들의 모습이 나올 때 비로소 국가보훈부

가 국가보훈부다워지는 길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다음 꼭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은 특히 뉴라이트 역사 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라이트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고 들어와서 역사를 왜곡·변조시키면서, 날조하면서 기승을 부렸던 사례들은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예컨대 금융의 자유화라든가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또 민영화 문제라든가 복지의 축소 문제라든가 작은정부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것발들을 들고 들어와서, 80~90년대에 자본주의 개혁 혹은 시장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등장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어들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날조한 사례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처음 뉴라이트가 시작될 때는 그동안에 보수가 가졌던 너무 반공 편향적인 이런 것 속에서 올드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독재를 옹호하고 독재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했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건데 이렇게 친일, 매국 혹은 식민사관 이런 것들까지도 미화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된 부분들은 일종의 변종이고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쯤은 큰 안목에서 한번 정리하고 독립과 또 호국과 민주라는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보훈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보훈 대상자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남근 위원 그래서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점점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지원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부족하니까 여러 위탁병원들을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 같은 것도 확대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은 늘지 않았어요. 보훈 대상자는 점점 나이가 들고 치료는 받아야 될 것이 많은데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지원 예산들은 늘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후보자님?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마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지요, 쓰는 데는 많아지고, 같은 인원이라도.

○김남근 위원 치료를 못 받는 것들도 있고 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보훈병원에서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예산들을 갖다가 진료비 예산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을 갖다가 쓰는 이·전용 부분들이 굉장히 많

아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것 갖다 쓰지 말고 정확하게 보훈 대상자가 연령들이 높아지고 치료받을 게 많아졌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추계하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부대의견 계속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5년도 예산에서도 감액이 됐어요, 의료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추경에 담아 가지고 좀 늘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니까 계속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쓰는, 그렇지요? 다른 예산을 갖다 쓰고 이러면 원래 감사원 감사 대상도 되고 징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게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감사는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어 가지고 왔는데 보훈장관님 되시면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의 예산 운용을 더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장관이 되신 다음에 새 정부니까 기재부하고 어떻게 싸우시든지 설득을 하든지 좀 해서 이렇게 편법적인 예산편성하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변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변해가는데 예산은 그대로 두는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꼭 설득을 해서 진료비 예산을 좀 바로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는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독립 정신을 계승해서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도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대폭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32억 정도 예산이었어요. 이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을 했겠지요, 2022년도 예산이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게 18억으로 줄고 그 뒤에 17억으로 줄고 계속 줄어 왔어요. 이렇다 보니까 선양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80주년 광복절 행사 예산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냐면 제가 예산심사할 때 있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보훈부 예산이 한 8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있어서 행사비는 80억, 100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꾸준히 해야 될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의 예산들은 32억에서 또 반 토막이 나 가지고 17억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나라는 것들은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방금 숫자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근 위원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광복 80주년 사업추진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광복 80주년 사업을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

업이 뭐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뭘 줄 아십니까?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축제 이런 것보다, 축제 이런 건 오히려 3등이고 ‘국민참여형의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2등이고 1등은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을 해야 된다’가 가장 많은 비중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도 광복 80주년 사업이다 그러면 가장 중시해야 될 것들이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 성북구에도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라고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김남근 위원 우리 국어교과서에는 ‘님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서 문학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3·1 독립운동 때 독립운동가 33인에 참여하셨던 분이네요. 불교계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변절을 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1930년대 말까지 오니까 일제에 의해서 표적이 돼 있는 데다가 계속 탄압을 많이 받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변절했습니다.

그런데 변절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분들 중의 한 분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네요. 당연히 말년을 불우하게 지냈겠지요. 해방이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생가를 가 보게 되면 다 쓰러져 있고 집도 다 부서져 있고 그래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도 않고.

6월 초에 선양 사업의 일종으로 돌아가신 지 81주기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보훈부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훈부장관 명의로 화환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게 다행이요. 보훈부장관님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보훈부장관이 바뀌니까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이런 걸 상당히 윤석열 정부 때 홀대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반드시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1차 주질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이력을 살펴보니깐 보훈 업무와는 좀 동떨어져 있고 또 전문성도 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질의에서는 후보자님 도덕성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발간한 저서가 ‘꺼병이의 꿈’ 맞습니까, 자서전?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혹시 별명이 꺼병이신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실제로 그렇게 불립니다. 특히 집에서 집사람한테 듣습니다.

○李憲昇 위원 재미있는 별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 생활을 전투경찰로 복무를 하셨데요. 여기 보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그런 것을 좀 써 놓은 게 있던데 그런 적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그것 쓴 걸 보면 기합도 주고 구타도 했다고, 그 밑에 보면 기합은 졌으되 구타를 안 해서 후임병들이 굉장히 고마워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영창까지 갈 뻔한 그런 적은 있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런 일이 있었는데 301전경대장님 배려로 그냥 기합만 받고 마쳤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들에게 지금이라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한마디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반적인 기합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만나면 그냥 서로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먹질이나 발길질은 하지를 않았거든요.

○李憲昇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 그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습적으로 선거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무려 다섯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李憲昇 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게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해 가지고 아마 15%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절반을 선거 보전 받았다는데 금액을 얼마 보전을 받았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한 7억 3000 중에 3억 6500 정도 받았습니니다.

○李憲昇 위원 그 정도.

그래서 21년 4월 달에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李憲昇 위원 그렇게 되면 선거 보전금을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까지 반환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공직자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5000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후보자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는 마이너스 한 3억 되고요, 집사람은 플러스 한 4억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있는 게 집사람 명의입니다.

○李憲昇 위원 다 됐고 후보자는 마이너스 3억 얼마인데 그중에 선거 보전금 보전해야 될 거 그것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2억 7000 얼마?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李憲昇 위원** 그런데 최근에 15개월간 매달 110만 원씩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116만 원……

○**李憲昇 위원**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는 겹치기 근무 논란 속에서 어떤 때는 같은 달에 다섯 군데 업체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받은 적도 있는데 한 칠팔천만 원 이렇게 수령했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보니까 칠팔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금액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李憲昇 위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세금 문제도 있고 그 내용 중에 또……

○**李憲昇 위원** 후보자 부인께서도 한 사오천만 원 버시고,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선관위에서 반환 명령을 여러 번 내렸는데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갚아 가는 그런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또 행정관청에서 여러 번 공문을 내려보냈다네요. 4년이 넘도록 그것을 납부를 안 하시다가 이번에 하셨는데 정말 공무담임을 하실 생각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일부나마 수익의 일부를 가지고 반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한번 돌려 드렸지만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 보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래도 제가 유죄가 그대로 결정된다면 그때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갚든지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李憲昇 위원** 혹시 이번에 장관에 임명돼 가지고 하시다가 경상북도 도지사에 또다시 출마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없습니다.

○**李憲昇 위원** 전혀 없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李憲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후보자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무려 다섯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 실수로 보기에 그렇고 상습적입니다. 또 선거보전금 반환 명령에 대해서도 안 내고 버티다가 장관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그 5000만 원 납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후보자가 과연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책임감이나 경각심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연 250만 보훈가족을 보살피는 보훈부장관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후보자 명예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든지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여러 군데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연합에이애피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광고회사입니다. 광고회사고 그다음에 책 출판했습니

다.

○**李憲昇** 위원 아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출판회사지만 연합뉴스에서 발간하는 연합뉴스 판매 대행업체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연합뉴스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한 달에 얼마씩 수령을 하셨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150에서 세금 일부 떼고 받았습니다.

○**李憲昇** 위원 구산물류는 아까 나왔지만 직원 수가 한 16명 되고 유니언에프앤브이 이것은 1년에 매출이 1억 7000밖에 안 된다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책정된 월급이……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유니언 회사는 그 회사와 여러 회사가 같이 있는데 주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급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는 유니언 거기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그 회사가 주식회사 명목은 다르지만은 세 개의 회사가 같은 주주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회계는 어디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급여는 거기서 들어왔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나중에 유니언에프앤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열사가 3개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머지 2개 회사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토디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것은 자료 있으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 후보자님, 오전의 주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훈이 정치에 휘둘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준현** 위원 저 또한 보훈이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조금 발전하는 방향에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지 퇴행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차츰차츰 발전하다 조금씩 퇴행하다 다시 발전하듯이,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훈부장관으로서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바로 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극단적 분열 상황,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제주와 증오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서 욕을 먹어도 계속 있고 자주 가다 보면 나중에는 말문을 틔디다. 말문을 트는데, 결과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만나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가 말쑥드리기에는 저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강준현 위원** 해법이 막연하지만 노력은 하셔야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오늘 다 나온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강준현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국민통합이다, 국가통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저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신 있게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해 나갈 때 그런 말씀을 더 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게 임명의 뜻을 살리는 거다, 왜냐하면 권오을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이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여기 보시면 김용만 위원님 계신데 그 부친이 김구 선생님 손자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훈처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보훈업무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훈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부로서의 위상이나 부로서 그 모습에 맞는 업무 역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보훈부의 위상이랄까 업무 능력이랄까 업무 체제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선진국에 가면 보훈이 모든 국가의 최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야 됩니다. 왜? 처음에 시작한 그렇게 하지만 밖의 정치권이나 밖의 민간단체, 시민단체가 강력한 요구, 과도한 자기 입장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까지 휘둘러 왔다는 거예요, 보훈부가. 그래서 이상하게 서로 싸우는 장이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소신을 좀 지켜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오늘 지적하실 때 보면 위원님들이 전문성도 부족하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전과도 많이 있으니까 준법의식도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오늘 다 이야기 나왔습시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보면 항상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더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호국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을 장관님이 되시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임명의 취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십자성 작전 이런 것 아세요? 들어 보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들어는 봤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들었는데 바로……

○위원장 윤한홍 모르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아덴만 여명작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사건 이런 게 있는데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은 참전만 하면 참전유공자법에 따라서 유공자 예우가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위험 작전입니다. 국가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작전에 참여했는데 실제 외상이나 신체적 부상이 없으면 유공자로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하나, 개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지난번 제1연평해전에 참여한 장병 8명이 지난 2월 달에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이 났어요. 왜? 부상이 없었다, 신체적인 외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판정이 났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십자성 작전 같은 것도요 월남전이 끝나고 나서, 월남전이 종전이 됐습니다. 종전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 교민들과 우리 군인들을 호송하기 위해서, 태워오기 위해서 배가 간 거예요. 가서 안전하게 다 대한민국으로 배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전되고 나서 갔다 왔기 때문에 유공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교조적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가시면……

아직까지 보훈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국가로부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소외되는 일 없도록 좀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 하면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 하나하나 잘 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쳤고요. 재보충질의 3분 시간 있는데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국민의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고 답변 다 합쳐서 3분입니다.

○李憲昇 위원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질문 아직 못 한 것도 많고 마무리도 해야 됩니다. 마무리 먼저……

○위원장 윤한홍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이양수 위원님이 먼저입니다.

○이양수 위원 추가로 하시면 되지요, 추가로.

○위원장 윤한홍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양수 위원님 준비해 주세요.

○이양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편한 질문들이 많겠지만 인사청문회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차남이 97년 11월 20일에 서울 목동에서 안동으로 전학을 갑니다. 가는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차남 이렇게 3명이 11월 20일 날 같이 전입이 돼요. 그런데 8일 만에 배우자와 장남 두 분은 서울로, 8일 만에 서울로 옵니다. 그러면 차남만 혼자 안동에 남아 있는 거예요. 11월 20일 이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한 달 정도 다니고 방학을 하고 그러니까 2월 18일 날 안동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또 졸업하자마자 2월 24일 목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요. 그런데 또 중학교는 안동 중학교로 입학할 하자마자 하루 만에 서울 목동으로 전학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무슨 초식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저렇게 하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단 둘째가 안동 서부학교 5학년까지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졸업 때가 되었을 때 5학년까지 마쳤으니까 졸업은 그 학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보고 난 다음에 혼자만 내려가도 되는데 같이 내려간 모양입니다.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그리고 제 아내와 큰아들은 바로 서울로 다시 오고요. 우리 아들은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배정은 그 전 해

12월에 있었을 때 배정이 됩니다.

○이양수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혼자 거기다 놔뒀다고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는 거기 있었지요.

○이양수 위원 그러면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같이 있었던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이양수 위원 그런데 그때 그 사실을 모르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니, 같이 이렇게 전입돼 온 것은 몰랐지요.

○이양수 위원 전입신고를……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니, 제 아내도 이야기가 착오였습니다. 내가 세대주로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가도 되는데 같이 다 내려오는 걸로 되었다가 그해 중학교는 안동에서 바로 배정되니까 안동 중학교로 배정이 됐고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안동 중학교에 하루 적을 둔 것으로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게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중학교에 가지…… 중학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등학교 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전학을 시켜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이를……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단 졸업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온 겁니다.

○이양수 위원 차남을 목동의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니, 거기는 전부 다 신목중학교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 학군이.

○이양수 위원 그러면 자체분이 자기가 원래 다니던 고향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싶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려가서 졸업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온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두 달 내려갔다가 졸업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양수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나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양수 위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후보자 얘기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저의……

○이양수 위원 여기에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공교육 질서 훼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훈 위원 예.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되셨으니까 과거 SNS에 올렸던 글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경망한 글들을 좀 올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어느 여자의 첫 경험. 나는 스무 살에 처음으로 경험을 했다’, 아마 성관계 경험을 묘사한 것 같아요. ‘조그만 사각의 방에서 내가 존경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보면 또 ‘하얀색 위에 선명하게 얼룩진 빨간 흔적’, 이거 아마 여성분들의 첫 경험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묘사한 것 같은데 이게 투표하자는 그 의미로 투표 독려 글을 올리는데 되게 선정적인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투표를 독려하는데 굳이 이렇게 여성의 첫 성관계를 묘사해 가면서 SNS에 글을 올리실 필요가 있었는지 싶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부탁할까요.

‘국회사무총장 때 박희태 의장님을 모시고 일했습니다’, 당시에 박희태 의장이 원주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운동보조원, 그러니까 캐디의 신체를 수차례 접촉한 건으로 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는데 결국 대법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사실상 실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권오을 당시 사무총장께서는 ‘나는 박희태 의장하고 공을 여러 번 쳐 봐도 그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놨어요. ‘현장에 없어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힘들지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 당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예요, 이게.

장관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이런 경망한 표현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일단 첫 번째 글에 대해서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 도무지 무슨 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라서 ‘내가 이런 글을 썼을까?’ 그래서 밑에 보니까 ‘투표합시다, 6월 4일’ 그런 글이…… 거기서 제가 직감적으로…… 변명이라고 들어 주십시오. 이게 내 사이트로 올라왔지만 내가 올린 글이 아니구나. 그래서 밑의 댓글도 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누가 나하고 같이 있었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김상훈 위원** 아니, 글을 올린 분이 지금 권오을 후보자의 사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직접 SNS에 올린 글로 돼 있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제가 올린 글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번 직감적으로…… 6월 4일 날 내가 투표를 독려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경선에서 저 있었던 입장에서……

○**김상훈 위원** 30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냥 하십시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한말씀 더 드리면 이걸 들으면서 제가 성인지감수성이 굉장히 낮구나, 우리 아들이 지적을 하고 젊은 직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이 때문에 그런가? 성인지감수성이 정말 낮은 것인가? 왜 이 부적절한 이야기, 부적절한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저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밑의 글은 제가 쓴 게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하여튼 그 선정적이고 경망한 표현은 자제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PPT 5번을 좀 띄워 놓으세요.

사실 이 질문을 준비했다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마침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중에 후보자가 직접 아마 밴드에 글을 올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글을 올려도 그거 지극히 부적절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솔로대첩이라고 그때 여의도에서 모였던 건데요 거기 보면 ‘가만튀’라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올리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는 그때 모르고 올렸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저건 성적 범죄행위입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 참 민망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저 댓글의 저걸 보면 일회성 성관계를 마치 용인하는 듯이 저렇게 써 놔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2차 가해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 문제도, 투표 독려 글도 그렇고 저 글도 그렇고 보면 후보자가 단순히 실수로 이런 걸 올렸을까 하는 의문심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한 번 정도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2012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이어져요. 그때 후보자 나이가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한 50대 중반 됐을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런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보훈부 수장으로서 보훈부 가족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훈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훈부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저보다 많이 사신 후보님한테 제가 감히 후보님의 삶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가 후보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든 채택하지 않든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의 보훈부장관으로 취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 불편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중책을 맡으시면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하신 말씀 정말 유념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용어가 있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昇 위원 국회사무총장 재직할 때 청조근정훈장 받으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李憲昇 위원 청조근정훈장.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李憲昇 위원 그 당시 추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추천 권한은 의장님 되어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대상자 추천 권한은 국회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사무총장은 행안부로 보낼 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하고요.

○李憲昇 위원 그러면 스스로 셀프 추천해 가지고 그 상을 받은 꼴인데요. 현직에 있으면서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가 받은 것은 G20국회의장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서 4명이 같이 훈포장을 받을 때 그때 받은 겁니다.

○李憲昇 위원 만약에 설사 큰 공훈이 있더라도 사무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공훈이 내려진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본인이 스스로 셀프 추천해 가지고 청조근정훈장을 받으셨고 또 이게 현직에 있으면서 받은 것은 유일하고 그다음에 이 청조근정훈장 받으신 것을, 이게 사실상 공직자의 최고 훈장인데 각종 선거에 나가실 때마다 ‘내가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공직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수행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했는데 그 홍보수단으로 쓰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장관이 되어서 활동하시다가 또 나중에 스스로 셀프 추천해 가지고 더 큰 훈장을 이렇게 받으실 그런 우려도,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양수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 하셨는데, 이 논문 직접 쓰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직접 썼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대학원을 88년 3월에 들어가고 논문 제출일이 2000년 2월인데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4학기를 마치고 정치를 위해서 안동으로 내려가서 오랜 세월을 못 쓰다가 그때 지도교수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논문을 마쳐라. 그래서 제가 논문 지금 쓸…… 많이 도와줄 테니까 마치라고, 특히 국회는 도서관에 모든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추천해 줄 테니까 쓰라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李憲昇 위원 15대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 논문을 쓰셨는데 졸업하고, 수료하고 9년 만에 그 논문을 썼는데 너무 갑자기 쓰다 보니까 논문 각종 표절 의혹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후보자께서 직접 쓰셨는지 조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13초 남았는데 나중에 마무리 발언 할 때 다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후보자의 안보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잘 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추경호 위원 20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치권 또는 일부 인사들이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천안함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후보님의 견해를 좀 여쭙겠습니다.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어떻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믿지 않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사실을 왜곡해서 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경호 위원 ‘북한의 폭격은 근거가 없다. 자폭일 수도 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도 그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추경호 위원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2014년에 트위터에 게재한 얘기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아니, ‘연구논문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트위터에 게재를 하신 겁니다.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것이다’, ‘천안함 승조원들에게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건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추경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추경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 2014년에 트위터에 올린 문장이고 그 이후의 것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 한 발언들입니다.

많은 인사들이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참전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훈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증거가 명백히 나온 사실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팩트 그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이런 음모론이 확산되면 안 되겠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추경호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겠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추경호 위원 오죽 답답했으면 참전 장병과 유가족께서 천안함 왜곡 처벌법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겠습니까? 나중에 직을 수행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잘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주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경호 위원 왜 애매하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결과적으로 남북 화해·평화체제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굳이 주적이라는 20년, 30년 전에 썼던 용어를 지금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김정은은 한국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저는 김정은 말에 꼭 대응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적이 아니다, 적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맞대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 맞대응의 문제가 아닌데요.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대치 상황 아닙니까? 싸움이 나면 싸워야 할 상대도 북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희들이 말 가지고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자, 마무리해 주세요.

○추경호 위원 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수백만 호국 영령이 지금 누워 계시는데 보훈부장관이 답변하기를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말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가 자칭 고봉삼계탕 영업실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강민국 위원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인 고봉삼계탕에 근무하면서 지금 3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데 식품위생법 40조 1항에 의하면 지역 보건소의 보건증을

만드시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안 받았습니다.

○강민국 위원 받은 적 없지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태료 또한 부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근무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이에요.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 했더라고요.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5000만 원 가까이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의 상식을 넘어 위법행위라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5000만 원 받았다는 것은 한 이삼 년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보건증은 저희들이 진짜 몰랐습니다. 단지 제가 암 투병 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대체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강민국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이 평생…… 지금의 민주당을 만드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35일 만에 보훈부장관후보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민주당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4개 업체에 근무했다 하고 또 강의 한 번 없이 2개 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또 배우자가 대표인 삼계탕 가게에서 보건증, 계약서, 근무일지 없이 일하며 3개 법 위반까지 한 후보, 또 보니까 성인지감수성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또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훈부장관후보, 이 후보를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해야 될지 정말 저는…… 아마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굳이 이렇게 하면서 국가보훈부장관을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지적하신 말씀 중에 제가 수용할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고봉에서의 일은 저는 가족경영을 하면서 사실 그런 걸 다 써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일부에서는 가족경영에는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이 나타났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이 분명한데 무력 도발에 대해서 바로 응징을 한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써 긴장을 고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무력 하면 그 즉시 바로 응징을 하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일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남북의 국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강민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주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통일부장관이나 이런 것하고 좀 다릅니다, 보훈부장관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는 국가유공자, 호국유공자들은 대다수가 6·25전

쟁 또 북한의 침략 도발에 맞서다가 싸우면서 희생이 되신 분들이 호국유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훈부장관으로서는 북한을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점은 제가 어디 가서든지……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호국유공자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과 싸우던 분들이예요. 그분들을……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무력 도발에는 즉각 응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난 연평도 포격 때 ‘왜 거기 가서 폭격을 하지 않았을까, 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응징해야 되지만 나머지 말로 인해서 서로 긴장을 높이는, 맞대응하고 맞대응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

○위원장 윤한홍 그래도 보훈부장관으로서 호국·보훈유공자들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좋게 보면 아직 보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직접 담당하시는 업무가 북한과 싸우다가 희생되신 분들을 모시는 보훈부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질의를 할 때 그랬어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냐. 왜? 다 그런 분들이 호국유공자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사람은 유공자에 안 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시라고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아니,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1분만.

○李憲昇 위원 1분 가지고 마무리 되나.

○위원장 윤한홍 아니, 마지막으로 1분만 하세요, 끝까지 할 수도 없고.

이양수 위원님, 1분만 하세요. 1분만 하세요.

○이양수 위원 1분이요?

○위원장 윤한홍 야당 위원이니깐 1분만 하세요.

○이양수 위원 후보자님께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수십만 대군과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위협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양수 위원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이양수 위원 주적은 없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을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방이라든가 주적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현재는 북한입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현재 주적은 북한이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런데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 시점에……

○**이양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북한을 주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저희가 긴장을 높이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서 왜 조금 전에 주적으로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까?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아니요, 주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보통 일상적으로 주로 하는 말 가운데……

○**이양수 위원** 북한과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누가 더 강한가요?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재래식은 우리가 훨씬 강하고요. 핵무기는 절대적으로 열세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양수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무슨 그렇게 안일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250만 보훈가족이 내일 다 국회로 쳐들어오고 후보자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말씀 삼가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잠깐만요. 저도 마무리 기회를 줘야지.

○**위원장 윤한홍** 마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후보자 권오을**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미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청문회 기간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훈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된다면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깊이 새겨 보훈 대상자가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훈은 그 나라의 국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대통령님의 보훈 관련 국정철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훈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후보자와 보훈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일단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李憲昇 위원 충분한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마치고 이러면 되나.

위원장님, 편파적 진행 하지 마세요. 아니,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끝까지 기회를 줘야지 왜 마음대로 그렇게 발언 기회도 안 주고 그래요.

○위원장 윤한홍 장관후보자하고 관계자 여러분들 퇴장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또 뭐 의결할 것 있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라든지 일정 관계는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후보는 인사 한번 하는 게 안 낫나?

○위원장 윤한홍 아니, 좀 이따가 끝나고 와서 인사하라고……

○강민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한홍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서면질의는 전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권오을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그리고 보훈 관련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적이고 또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애를 써 주신 정무위원회 직원들 또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과 또 각 당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추경호 한창민 허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최기도

○출석 공직후보자

권오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출석 증인

신상철(주식회사 구산물류 대표자)
김광민(주식회사 유니언에프앤브이 대표자)